

고시기획

www.gosiplan.com

NEWS

지방이 아닌 수험생활의 메카 노량진에서 기숙반을 운영합니다! 상담문의 02-815-7819

스파르타 ALL CARE 기숙연계반

2020 지방직대비 5월 문제풀이반 개강!

전국 교육청 9급 공무원 경쟁률 발표

9급 교육행정직 평균경쟁률 17.51대 1 ... 광주시 35.43대 1로 대폭 상승

【 2019-2020년 전국 교육청 9급 교육행정직(일반) 경쟁률 현황 】

구분	선발인원		경쟁률		구분	선발인원		경쟁률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경기남부	491명	430명	9.6대 1	13.3대 1	강원도	186명	88명	10.7대 1	18.56대 1
경기북부	182명	216명	8.2대 1	8.9대 1	인천시	96명	140명	11.7대 1	12.8대 1
서울시	237명	355명	22.3대 1	21.91대 1	제주시	73명	38명	10.5대 1	20.1대 1
대구시	130명	94명	15.4대 1	25.1대 1	충청남도	187명	144명	9.6대 1	13.2대 1
대전시	37명	63명	31.6대 1	23.63대 1	충청북도	122명	124명	11.2대 1	9.8대 1
광주시	120명	49명	13.6대 1	35.43대 1	전라남도	176명	214명	10.5대 1	10.7대 1
세종시	42명	62명	13.9대 1	12.3대 1	전라북도	145명	188명	12.3대 1	13.5대 1
부산시	155명	206명	16.5대 1	16.1대 1	경상남도	93명	136명	22.9대 1	21대 1
울산시	42명	70명	22.1대 1	15.6대 1	경상북도	145명	191명	11.2대 1	13.5대 1

2020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9급 공무원 원서접수의 경쟁률이 발표됐다.

올해 교육청 9급 교육행정직(일반)의 총 선발인원은 2천808명으로 지난해 보다 149명이 많은 선발로 17.51대 1의 평균경쟁률로 나타났다.

참고로 지난해 9급 교육행정직(일반)은 2천659명 선발에 3만4천780명이 접수하여 평균경쟁률 13.08대 1을 보였다.

광주시 교육청, 경쟁률 35.43대 1 대폭 상승
 교육청 9급 교육행정직(일반)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시 교육청으로 49명 선발에 1천736명이 접수해 35.4대 1을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대전시 교육청 경쟁률이 23.6대 1로 나타났다.
 참고로 지난해보다 교육청 9급 교육행정직(일반) 경쟁률이 상승한 지역을 살펴

보면 ▲대구시 15.4대 1→25.1대 1 ▲제주시 10.5대 1→20.1대 1 ▲경기남부 9.6대 1→13.3대 1 ▲충청남도 9.6대 1→13.3대 1 ▲인천시 11.7대 1→12.8대 1 ▲경기북부 8.2대 1→8.9대 1 등이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17개 시·도 교육청 9급 교육행정직(일반)을 많이 선발하는 지역으로는 ▲경기북부 ▲서울시 ▲대전시 ▲세종시 ▲부산시 ▲울산시 ▲인천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이다.

참고로 지난해 9급 교육행정직 필기시험 합격선이 가장 높았던 울산시 교육청은 365.39점을 기록했으며 ▲서울시 357.99점 ▲인천시 335.09점 ▲대전시 362.55점 ▲대구시 354.94점 ▲광주시 346.23점 등을 보였다.

올해 교육청 9급 공무원 필기시험장소 발표일이 가장 빠른 지역은 대구시로 5월 25일이며, 나머지 지역은 6월 1일에 필기장소를 발표를 한다. 이번 필기시험일은 6월 13일이다.

박문각 합격예측 모의고사 '유명 학습관 제휴·공급'

2020년 국가직 9급 필기시험은 지방직 9급 필기시험 일정(6.13.)을 고려해 7월 11일(토)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수험생들은 각 과목별 문제풀이와 모의고사 등을 통해 마무리 학습에 집중해야 할 시기이다.

수험교육 전문기업 박문각에서는 AI시스템이 분석하는 최신 유형 적중 예상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 실전 감각을 높이고


싶은 수험생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박문각은 수험생들의 꾸준한 요청으로 지역 학원 및 학습관에 한해 운영되던 합격예측 모의고사를 제휴업체 지점 ▲토즈 스테디센터 ▲아카데미라운지 ▲다올 ▲영광독서실 ▲하우스터디 프리미엄 독서실 등으로 확대 시행하여 수험생들은 합격예측모의고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다.

본 모의고사는 영역별 전국 단위 응시자들과 성적을 비교할 수 있고 선택 직렬별 최근 3개년 경쟁률 및 합격 커트라인 반영으로 99%에 이르는 합격예측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영어 일일 모의고사 ▲공통 3과목 주간 모의고사 ▲합격예측 전국 월간 모의고사로 3단계 구성으로 실시된다.

< 자세한 내용은 2면에 이어집니다.>

BOOK info



이유진 편저/12,000원

합격하는 박문각 공무원 모의고사

이유진 국어 NEW 화제의 모의고사 Season.2

출간

공무원 합격에 날개를 달다!

- 매주 3회분씩 4주간 총 12회 모의고사로 실전 훈련 강화
- Level 0/Level 1/Level 2 국어 출제 요소를 난도별로 구현
- 독해 비중 높고 어휘, 한자도 독해 연계하여 출제
- 문항별 출제 요소 분석과 구체적인 명쾌한 해설

PMG 박문각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기간 한정 이벤트

순공시간이 늘었다.
성적이 올랐다!

5월 개강반

박문각 공무원 스파르타

PMG 박문각 공무원

집중과 자기 통제의 공간
"공부습관을 잡아야 한다"

스파르타 PRIMEPASS

노량진 학습관

전원 1인1실
숙련관 받으며
배정 무조건 공부

각원 수업(10:00~12:00)에
오면 1:1 맞춤관리

스파르타 전용비대
입원 테스트 시행
개인성적유지관리
1:1 학습전략수립 및
경기상담연봉

인공지능이 당신의 합격을 지원합니다!



모르는 것을 보완·확인해주는
확인학습 AiPen

PMG 박문각

- 명칭 : (주)에듀스파박문각 고시기획신문사
- 등록연월일 : 2014년11월1일
- 제호 : 고시기획
- 간별 : 주간(매주 목요일)
- 인쇄인 : 정희택
- 발행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71
- 대표번호 : 02-824-8385

2020년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6월20일' 실시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검사	인·적성검사	면접시험
장소 발표	6월10일	7월3일	7월20일		7월29일
시험일	6월20일	7월13~17일	7월21~23일	7월27일	8월3~7일
합격자 발표	7월3일	7월20일	7월29일		8월14일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검사 및 인·적성검사	면접시험
장소 발표	6월10일	7월3일	7월24일	
시험일	6월20일	7월7~17일	7월29일~8월7일	
합격자 발표	7월3일	7월24일	8월28일	

	필기시험	체력시험	서류전형	신체검사 및 인적성검사	면접시험
장소 발표	6월12일	7월17일	8월11일		8월25일
시험일	6월20일	7월27~31일	8월4~6일	8월17~19일	8월31일~9월4일
합격자 발표	7월17일	8월11일	9월18일	8월25일	9월18일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검사/서류전형(인적성검사)	면접시험
장소 발표	6월15일	7월10일	7월20일	
시험일	6월20일	7월15~17일	7월27~29일	
합격자 발표	7월10일	7월20일	7월21일	

	필기시험	체력시험	서류전형	신체검사	면접시험	면접시험
장소 발표	5월28일	7월14일	8월13일		9월8일	
시험일	6월20일	7월29~30일	8월18일	8월19~21일	8월28일	9월14일, 16일
합격자 발표	7월14일	8월13일	9월8일		10월6일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었던 2020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일정이 각 시·도별로 발표되고 있다.

3월28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은 6월20일로 변경한다고 공고했다.

지난 6일까지 필기시험 변경 날짜 공고가 발표된 지역을 살펴보면 ▲부산시 ▲제주도 ▲울산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시 ▲충청북도 ▲경기도 ▲대구시 ▲강원도 ▲대전시이다.

참고로 상세 일정이 모두 공고된 지역은 전라북도·전라남도·충청북도·광주시·대전시이다.

각 지역별 소방(남)

서울시 경쟁률 28.5대 1

각 지역별 소방(남) 경쟁률을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서울시 28.5대 1 ▲대구시 22.4대 1 ▲대전시 19.2대 1 ▲울산시 16대 1 ▲부산시 15대 1 ▲충청남도 13.7대 1 ▲광주시 12대 1 ▲제주도 11대 1 ▲전라남도 9.34대 1 ▲전라북도 9.3대 1 ▲경기도 9.1대 1 ▲세종시 9.1대 1 ▲경상북도 8.9대 1 ▲충청북도(시군거주) 8.86대 1 ▲경상남도 8.1대 1 ▲창원시 7.6대 1 ▲인천시 7.5대 1 ▲강원도 7대 1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충청북도(도내)로 6.4대 1로 발표됐다.

[2019~2020년 국가직 9급 채용인원 비교] ⑬ 출입국관리 채용인원 감소... 경쟁률 상승

시행년도	선발예정인원	출원인원	경쟁률
2019년	261명	9천956명	38.1대 1
2020년	213명	1만53명	47.2대 1

인사혁신처는 올해 국가직 9급 출입국관리(일반) 채용인원을 213명 선발한다고 공고했다. 이는 지난해 채용인원 261명보다 48명이 감소한 선발이다.

전년도와 비교해 9급 출입국관리 출원인원 및 경쟁률을 살펴

보면 ▲출원인원 9천956명→1만53명 ▲경쟁률 38.1대 1→47.2대 1로 출원인원과 경쟁률 모두 상승했다.

이는 선발 예정인원은 감소하였으나 출원인원이 늘어나 경쟁률도 함께 높아졌기 때문이다.

각 지역별 소방(여)

충청남도 경쟁률 58.5대 1

이어 각 지역별 소방(여)를 경쟁률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충청남도 58.5대 1 ▲부산시 41.6 ▲서울시 36.3대 1 ▲대구시 30.3대 1 ▲경상북도 28.8대 1 ▲경기도 26.1대 1 ▲대전시 24.2대 1 ▲전라북도 23.2대 1 ▲전라남도 22.2대 1 ▲인천시 21.1대 1 ▲제주시 16.7대 1 ▲울산시 13.7대 1 ▲경상남도 13.5대 1 ▲강원도 12.5대 1 ▲창원시 12.2대 1 ▲충청북도(도내) 9.4대 1 ▲세종시 6대 1로 나타났다.

참고로 올해 광주시와 충청북도(시군거주)는 소방(여)의 선발하지 않았다.

향후 시험일정은 각 시·도별 지자체에서 변경된 상세일정을 게시할 예정으로 수험생들은 공고문을 확인해 시험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

전북 지방직 9급 경쟁률 발표

9급 사회복지(일반) 전년 대비 전 지역 상승

지역	일반행정	지방세	사회복지	지역	일반행정	지방세	사회복지
전라북도	256대 1	-	23.5대 1	진안군	8.79대 1	17대 1	13대 1
전주시	30.52대 1	23.83대 1	15.88대 1	무주군	11.40대 1	-	10.5대 1
군산시	26.7대 1	-	12.73대 1	장수군	9.69대 1	-	17.67대 1
익산시	32.06대 1	20대 1	24.5대 1	임실군	17대 1	16대 1	18대 1
정읍시	10.14대 1	12대 1	16.4대 1	순창군	26.67대 1	19대 1	16대 1
남원시	10.10대 1	7.5대 1	18.5대 1	고창군	8.41대 1	7.5대 1	11.67대 1
김제시	13.33대 1	17.5대 1	-	부안군	6.02대 1	19.33대 1	14.15대 1
완주군	9.91대 1	20.33대 1	15.2대 1				

지난 1일 원서접수를 마무리한 제3회 전라북도 지방직 9급 경쟁률이 발표됐다.

올해 총 선발인원은 1천119명에 12만1천237명이 출원하여 10.94대 1의 경쟁률로 지난해 9.4대 1보다 소폭 상승했다.

9급 행정(일반)직을 각 지역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전라북도는 1명 선발인원에 256명이 접수해

지역 중 가장 높은 25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9급 세무(일반)직을 높은 경쟁률 순으로 살펴보면 ▲전주시 23.83대 1 ▲완주군 20.33대 1 ▲익산시 20대 1 ▲부안군 19.33대 1등이다.

9급 사회복지(일반)는 전년대비 모든 지역에서 경쟁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문각 공무원 스파르타 프라임패스

노랑진 / 종로 / 강남 / 부산 / 평택 / 양산 / 순천



박문각 올패스
무제한 동영상강의



최신 시설의
지정좌석 전용학습관



철저한 관리/감독
스파르타 관리시스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최적의 학습 환경 제공

노랑진 학습관 02-812-6618	종로 학습관 02-6182-9620	강남 학습관 02-3476-6030
부산 학습관 051-807-1972	평택 학습관 031-691-1972	양산 학습관 055-388-1972
순천 학습관 061-726-1113		

이런 수험생에게 스파르타 프라임패스를 추천합니다

 동영상 강의를 혼자만 학습 능력이 떨어졌던 수험생	 취약부분의 반복학습과 철저한 생활관리를 원하는 수험생	 정확한 수험정보와 맞춤형 수험전략이 필요한 수험생	 자유로운 강사선택과 학습비용 절감을 원하는 수험생
--	--	--	--

선택 공무원 동영상 강의의 무제한 수강과
따라올 수 없는 관리 시스템의 합격 시너지 효과를 경험해보세요.

PMG 박문각공무원

박 문 각 공 무 원

합격을 부르는 박문각 AI 확인학습

인공지능이 반영된 박문각 확인학습 시스템으로
빠르게 합격 하세요!



제1차 경찰공무원 필기시험 5월30일

‘D-24’ 남은 수험기간 ... 마무리 학습 집중

【 2020년 경찰공무원 상세 시험일정 】

구분	시험구분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일	합격자 발표
1차시험	필기시험	5월22일	5월30일	6월4일
2차시험	신체·체력·적성검사	6월4일	6월8일~7월3일	불합격자 현장통보
3차시험	응시자격 등 심사	-	7월6~10일	불합격자 개별통보
4차시험	면접시험	7월10일	7월20일~8월4일	8월7일

【 2020년 경찰공무원 선발인원·응시인원·경쟁률 현황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남부	경기북부
일반 (남)	선발인원	447명	106명	74명	180명	52명	40명	27명	279명
	응시인원	6천975명	2천650명	1천808명	2천545명	1천234명	945명	692명	4천346명
	경쟁률	15.6대 1	25대 1	24.4대 1	14.1대 1	23.7대 1	23.6대 1	25.6대 1	15.5대 1
일반 (여)	선발인원	206명	48명	29명	63명	12명	12명	9명	75명
	응시인원	3천855명	1천234명	767명	944명	507명	476명	1천578명	872명
	경쟁률	18.7대 1	25.7대 1	26.4대 1	14.9대 1	42.2대 1	39.6대 1	31.4대 1	21대 1
일반 (남)	선발인원	109명	27명	97명	28명	28명	55명	46명	18명
	응시인원	1천757명	741명	1천726명	739명	556명	1천66명	1천530명	429명
	경쟁률	16.1대 1	27.4대 1	17.7대 1	26.3대 1	19.8대 1	19.3대 1	33.2대 1	23.8대 1
일반 (여)	선발인원	50명	12명	40명	14명	14명	24명	20명	7명
	응시인원	812명	329명	761명	334명	346명	470명	611명	183명
	경쟁률	16.2대 1	27.4대 1	19대 1	23.8대 1	24.7대 1	19.5대 1	30.5대 1	26.1대 1

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미뤄졌던 2020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시험 일정을 발표했다.

당초 4월4일에 치러지기로 했던 제1차 경찰공무원 필기시험을 5월30일로 변경되었다.

이번 경찰공무원 순경(남) 시험에는 총 3만2천197명이 출원해 평균 17.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순경(여)은 총 1만4천362명이 접수를 마쳐 평균경쟁률은 20.8대 1로 나타났다.

올해 제1차 순경(남)의 각 지역별 현황을 경쟁률이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상남도 33.2대 1 ▲충청북도 27.4대 1 ▲전라북도 26.3대 1 ▲울산시 25.6대 1 ▲부산시 25대 1 등으로 나타났고, 평균경쟁률은 지난해 32.1대 1보다 하락한 17.9대 1로 발표했다.

또한 순경(여) 지역별 경쟁률 순으로 살펴보면 ▲광주시 42.2대 1 ▲대전시 39.6대 1 ▲울산시 31.4대 1 ▲경상남도 30.5대 1 ▲충청북도 27.4대 1 ▲대구시 26.4대 1 ▲제주시 26.1대 1 ▲부산시 25.7대 1 등으로 높게 나타났고,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 34.2대 1에서 20.8대 1로 순경(남)에 이어 순경(여)도 하락했다.

전년도 선발인원과 올해의 변화를 비교해보면 순경(남)은 1천41명에서 748명이 증가한 1천789명을 선발하며, 순경(여)는 전년대비 294명이 증가한 690명을 선발한다고 공고했다.

수험생들은 5월30일 필기시험을 앞두고 컨디션 관리에 힘써야 한다.

수험전문가는 “새로운 이론을 공부하는 것보다 기존 공부하던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을 찾아 복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99% 적중률 ‘박문각 합격예측 모의고사’ 유명 학습관 제휴, 공급

3월부터 제휴 지점 내 론칭 예정

토즈 스테디센터, 르하임 스테디카페, 하우스터디, 아카데미라운지, 다올, 영광독서실 등



시데이터 기반

분석 문제 단계별 실시

수험교육 전문기업 박문각은 오는 3월부터 공무원 합격예측의 99% 정확도를 자랑하는 모의고사 서비스를 박문각 남부, 종로, 강남 공무원 직영 학원과 학습관에 이은 제휴 업체로 확대 실시한다고 전했다.

박문각 합격예측 모의고사는 출제 위원급 75명의 박문각 공무원 교수진이 엄선한 문제를 빅데이터 기반의 AI시스템이 분석하여 최신 유형의 적중 예상 문항을 추출한 후 6회 이상의 합격전략 연구소 검수를 거쳐 최종 출제된다.

본 모의고사는 ▲영어 일일 모의고사 ▲공통 3과목 주간 모의고사 ▲합격예측 전국 월간 모의고사를 3단계 구성으로 실시한다.

이 단계별 프로그램을 따라가면 실전 감각 및 적응력이 극대화되기에 빠른 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공무원 합격에 이르는 실력을 갖출 수 있다고 한다.

다각적 학습 지원 기능 제공

이 외에도, 합격관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박문각합격관리)을 통하여 여러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답안입력 ▲성적관리 ▲동영상 해설강의 ▲1:1 상담 등 다양한 피드백 시

스팀이 제공되며, 박문각이 자랑하는 인공지능 학습지원 솔루션 AI확인학습 시스템을 활용하여 다각적인 학습 지원 기능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

99% 합격예측 적중률

체계적 합격 전략 가능

특히, 박문각 합격예측 모의고사는 수강생이 선택한 직렬 별 최근 3개년 경쟁률 및 합격 커트라인을 반영하여 99%에 이르는 합격예측 정확도로 체계적인 합격 전략을 세울 수 있고 과목 및 영역별 전국 단위 응시자들과 성적을 비교하여 수험생의 명확한 위치 진단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문각 관계자는 “수험생들의 끊임없는 요청에 따라 박문각 직영 학원 및 학습관에 한해 운영되던 합격예측 모의고사를 ‘토즈, 르하임, 하우스터디, 아카데미라운지, 다올 프리미엄독서실, 영광독서실’ 등 제휴업체 지점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라며 “확대 시행되는 합격예측 모의고사를 통해 빠른 성적 향상과 실전 감각 체득을 통해 소망하는 공무원 합격을 달성하실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박문각 합격관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박문각합격관리), 제휴 학습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9급공무원 시험대비

박문각 합격예측 전국 모의고사

온라인 / 오프라인 동시시험

2020.5.31.(일) 10:00

응시직렬

일반행정 / 교육행정 / 세무(지방세) / 사회복지 / 기술직 / 소방직(공채)

합격을 만드는 박문각 모의고사

- 실제 시험과 동일한 유형 & 문항구성
- 6회 이상 검수로 엄선된 문제
- 전국 응시생대비 합격가능성 예측
- 오답노트 관리하는 과목별 약점 영역

박문각 전국 모의고사의 합격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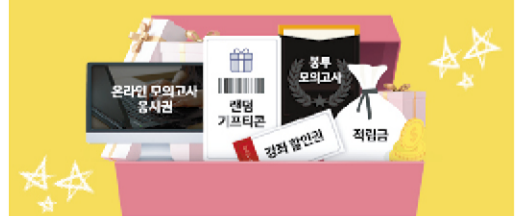
- 다양한 성적동계로 본인의 정확한 위치 파악
- 영역별 취약점 분석하여 합격 전략 수립
- 과목별 성적비교로 나의 위치 및 강·약점 분석
- 매 월 응시한 모의고사 성적변화 추이 분석
- 직렬별 성적비교를 통해 직렬선택 유·불리 예측
- 시간안배 및 실전감각 훈련으로 실수 최소화

합격예측 전국 모의고사

LUCKY BOX

시험 당일 온라인 응시한 수험생 중, 추첨을 통해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이벤트 상품은 매월 달라집니다-



*9급 모의고사 당일 온라인 응시자 중 추첨 (10명)
*줄세우기 및 3개 이상의 과목이 40점 이하일 경우 제외

PMG 박문각

박문각 신청지점 직배송

합격예측

모의고사



#공무원 #공무원소방직

토즈, 르하임, 아카데미라운지, 다올, 영광독서실, 하우스터디 프리미엄 독서실에서
박문각 합격예측 모의고사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TOZ StudyCenter

L`Chayim STUDY CAFE

ACADEMY PLUS CO.,LTD.
ACADEMY LOUNGE

 **다올 STUDY PLACE**

영광독서실

하우스터디
프리미엄 독서실(일부 지점)

일일

영어 실력 완성!
영어 어휘/문법
일일 모의고사



주간

공통과목 완전정복!
공통 3과목
주간 모의고사



월간

실전 감각완성!
합격예측
전국 모의고사



- ✓ 매일, 꾸준한 학습을 통한 **영어 실력향상!**
- ✓ 1년 6회독! 공통 3과목 **빈틈없는 반복학습!**
- ✓ 매월, **99% 정확도의 합격 예측**을 통한 전략 제시!

합격을 원한다면, 지금 박문각 합격예측 모의고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33만
누적 응시생

99%
합격예측 성공

AI 확인학습
학습지원 시스템

75명
전문 출제위원

자세한 내용은 토즈, 르하임, 아카데미라운지, 다올, 영광독서실, 하우스터디 등 관련 지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0년 지방직 9급 지방세 채용 총 정리」 ⑨ 인천시 신규채용 60명 ... 전년 대비 15명 증원, 2020년 경쟁률 하락세

2020년 지방직 9급 공무원 원서접수가 모두 완료되었다. 지방세 직렬의 17개 시·도별 채용 현황을 총 정리해본다.

▶ 인천시 신규채용 '60명'

구분	2019년 선발인원	2020년 선발인원
시·구	42명	59명
강화군	2명	-
옹진군	1명	1명

인천시는 올해 9급 지방공무원 지방세(일반) 신규채용을 총 60명 선발한다고 공고했다. 시·구에서 총 59명을 선발하며, 옹진군은 1명을 모집한다.

올해 지방세 채용규모를 살펴보면 지난해 선발인원 45명보다 15명 늘어난 것이며, 시·구에서만 약 140% 증가했다.

한편 강화군은 지난해 2명을 선발했으나 올해는 채용이 없으며 옹진군은 지난해와 동일한 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 올해 평균경쟁률 하락, 지난해 응시율 상승

구분	경쟁률		응시율	
	2019년	2020년	2018년	2019년
시·구	12.1대 1	8.3대 1	59.2%	67.4%
강화군	3.5대 1	-	-	100%
옹진군	6대 1	11대 1	65.5%	50%

- 평균 경쟁률 '8.4대 1'

2020년 인천시 지방세(일반) 원서접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균경쟁률은 60명 모집에 총 503명이 접수를 마쳐 8.4대 1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평균경쟁률 11.6대 1과 비교해 다소 하락한 것이다.

올해 인천시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시·구는 59명 선발 공고에 492명이 몰려 8.3대 1을 기록했다.

옹진군 선발인원은 1명이었고 이에 11명이 접수하여 경쟁률은 11대 1을 기록했다.

참고로 지난해와 올해 지역별 경쟁률 추이를 살펴보면 ▲시·구 12.1대 1→8.3대 1 ▲옹진군 6대 1→11대 1로 변화했다.

- 2019년 응시율 '67.6%'

2019년 인천시 지방세(일반) 평균 응시율은 67.6%로 2018년 59.6%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응시율 100%를 기록한 지역은 강화군으로 2명 모집에 7명이 접수를 마쳤고 전원 모두 시험에 응시하여 실질경쟁률도 변동없이 3.5대 1이다.

이어 각 임용기관별 응시율을 살펴보면 시·구 42명 모집에 509명이 출원해 343명이 응시하여 67.4%의 응시율을 보였다. 옹진군은 1명 선발공고에 6명이 접수했으나 3명이 응시해 50%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 지방세(일반) 합격선 현황은?

구분	2018년		2019년	
	합격선	임용예정기관	합격선	합격선
시·구	353.45점	시·구	349.09점	
강화군	-	강화군	330.77점	
옹진군	351.25점	옹진군	297.95점	

인천시 9급 지방세(일반)의 2018년과 2019년의 합격선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다.

▲시·구 353.45점→349.09점 ▲옹진군 351.25점→297.95점으로 합격선은 모두 하락했다.

참고로 강화군은 2018년과 올해 선발공고 없었으며 2019년에 2명 모집에 3.5대 1의 경쟁을 보였으며 합격선 330.77점으로 나타났다.

구분	성별		연령별					
	남	여	~19세	20~25세	26~30세	31~35세	36~40세	41세~
시·구	14명	28명	-	14명	22명	4명	1명	1명
강화군	1명	-	-	1명	-			
옹진군	-	1명	-		1명	-		

▶ 최종 합격자 성별·연령은?

- 지난해 여성 합격률 대폭 증가

인천시 9급 지방직 지방세(일반)의 최종합격자 성별 및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2019년 최종 합격인원 총 44명 중 시·구에서 ▲남성 14명 ▲여성 28명이 합격했고, 강화군에서 남성 1명, 옹진군에서 여성 1명이 합격했다.

지난해 인천시 지방세 여성 합격자 비율은 66%로 나타나 2018년 37.5%보다 대폭 상승했다.

- 시·구 모집 26~30세 최다 합격

2019년 인천시 9급 지방세 최종 합격자 연령대를 임용기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구 모집에서는 26~30세가 22명으로 합격인원이 가장 많았으며, 이와 함께 연령대별 합격인원을 살펴보면 ▲20~25세 14명 ▲31~35세 4명 ▲36~40세 1명 ▲41세 이상 1명으로 나타났다.

이어 강화군은 2명 선발예정이었으나 최종 1명이 합격했으며 20~25세의 연령대이다. 또한 옹진군 선발인원은 1명으로 31~35세 연령대에서 1명이 최종 합격했다.

Human 사회복지직 제자들의 감사의 글

'Human 최종합격 제자들의 감사의 글' 중에서 발췌 (미래가치 위)

김유리 제자님
2017년 인천광역시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직 최종합격

아빤이 범위를 좀 허주시고 일차게 알려 주셔서 공부하는 데 어려움 없이 교수님 커리를 따라가면서 시험에 대비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실감수업을 들으면서 아빤이 힘들 때마다 중간중간 격려해주는 말씀과 많은 동기부여 말씀 덕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고 제 스스로를 단련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빤의 법령특강은 이번엔 법령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서 조금은 아쉬웠지만 저에게 법이라는 부담감을 크게 덜게 해주셨던 명강의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면접특강 & 개별코칭에서도 비싼 스캐줄에서도 한 명 한 명 코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빤의 '함께 나누고 배워서 남 주자'라는 신념 잊지 않고 좋은 사회복지공무원이 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박은안 제자님
2017년 하반기 전라남도 강릉군 사회복지직 최종합격

저는 아빤과 사회복지학개론 덕분에 합격에 했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사회복지학개론이 선택과목이기 때문에 필수과목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저는 사회복지학개론의 조정점수 그 자체가 아닌, 아빤의 철저한 문제 분석에 대한 신뢰와 그로 인한 효율적 시간관리 덕분에 합격에 다가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공무원 시험대비
**Human 사회복지학 개론
법령특강**

5월 9일 (토) 개강
14:00~18:30 (4주 완성)
교재: 2020 Human 사회복지학 법령특강(비매물)

법령학습에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는 수험생들의 욕구에 맞춰 단기간 집중정리
빈출법령 조문정리 및 법제 학습 Tip 제공
빈출법령 및 기타 출제 예상법령 문제풀이를 통한 효율적 마무리

Human 기부금 적립

1) 수강 수강생 1명당 후원 기부금 5만원씩 적립
2) 인강 수강생 1명당 후원 기부금 3만원씩 적립

Human 선생님의 깨알 선물

(상강은 매 강좌마다 지급 / 인강은 별도 안내)

1) 휴먼 동기부여노트 2) 휴먼 L출력 2개 3) 휴먼 포스트잇 세트
4) 휴먼 3개 볼펜 5) 휴먼 컴퓨터용 시간관리

PMG 박문각공무원 www.pmg.co.kr

노량진(남부고시)학원 021815-7819, 3280-9990

2021 확실한 공무원이 되는 방법

ON / OFF LINE
동시 진행!



박문각 공무원
한 박자 빠른 합격 전략 설명회

2021 5월엔 공직자 2020 시작! 2021 합격! 1년 학습 커리큘럼 & 학습 시기별 주의 점

5. 9 Sat. 2:00 P.M. 박문각 공무원 노량진 대강의실

05월 02일, 오후 2시
2021년 확실한 공직자 생활을 위한 준비

박문각 공무원 한 박자 빠른
합격 전략 설명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다양한 선물과 함께 박문각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 사은품은 현장 설명회 참석자에 한해 제공되며, 설명회 상황에 따라 사은품 내용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손재석

노범석



2019년 국어 영역별 기출분석(17)

| 이유진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이유진 국어 (다음 나라 카페: <http://cafe.daum.net/naraeyujin>)

- ▶ 이유진 출제포인트 99 마무리총정리 - 5월8일 개강 - [금토] 09:00~13:00 [2회완성]
- ▶ 이유진 우월한 국어[문법규정] - 5월13일 개강 - [수] 14:00~18:00 [8주완성]
- ▶ 이유진 우월한 국어[독해(문학)+어휘한자] - 5월14일 개강 - [목] 14:00~18:00 [8주완성]
- ▶ 이유진 NEW 화제의 모의고사 시즌3 - 5월15일 개강 - [금] 09:00~13:00

★ 한자와 어휘(4/60) - 발문 방식과 선지 초점의 변화

1. 한자(1/4)

18.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잘못된 것은? (2019년 지방직 9급)

- ① 그는 여러 차례 TV 출연으로 유명세(有名勢)를 치렀다.
- ② 누가 먼저 할 것인지 복불복(福不福)으로 정하기로 했다.
- ③ 긴박한 상황이라 대증요법(對症療法)을 쓸 수밖에 없었다.
- ④ 사건의 경위(經緯)는 알 수 없지만, 결과만 본다면 우리에게 유리하다.

[정답] ①

[출제영역] 어휘 - 한자

[해설]

유명세(有名勢)의 세(稅)는 '세금'을 뜻하는 '세'로서, 기존에 혼동하는 '유명세를 타다.'의 쓰임은 '세'를 선지에서와 같이 일종의 '세력(勢力)'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나타난 오류이다.

유명해지던 치러야 할 일종의 '세금, 대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관용어구이기 때문에 '유명세(有名稅)를 치렀다.'로 쓰는 것이 맞다.

[오답 해설]

- ② 누가 먼저 할 것인지 복불복(福不福)으로 정하기로 했다.
복불복이란, 복분(福分)의 좋고 좋지 않음이라는 뜻으로, 사람의 운수를 이르는 말이다. 사람의 운수에 따라 누가 먼저 할 것인지를 정한다는 뜻으로서 쓰임이 적절하다.
- ③ 긴박한 상황이라 대증요법(對症療法)을 쓸 수밖에 없었다.
'대증요법'이란, 병의 원인을 찾아 없애기 곤란한 상황에서, 겉으로 나타난 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처치를 하는 치료법을 이르는 말이다.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난 병의 증상만을 대응하여 처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문맥상의 해석이 가능하므로, 쓰임이 적절하다.
- ④ 사건의 경위(經緯)는 알 수 없지만, 결과만 본다면 우리에게 유리하다.
'경위'란,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알 수 없지만, 그 사건의 과정이 아닌 결과만 본다면,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문맥상의 해석이 가능하므로, 쓰임이 적절하다.

2. 성어(1/4)

17. 다음 () 속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9년 지방직 9급)

방랑시인 김삿갓의 시는 해학과 풍자로 가득 차 있는데, 무슨 시든 단숨에 써 내리는 一筆揮之(일필휘지)의 상태라서 일부러 꾸미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아름답다.

- ① 花朝月夕
- ② 韋編三絶
- ③ 天衣無縫
- ④ 莫無可奈

[정답] ③

[출제영역] 어휘 - 한자 성어

[해설]

지문의 문맥상, '무슨 시든 단숨에 써 내리는 一筆揮之(일필휘지)'라는 대목을 보면 一筆揮之(일필휘지)는 '글씨를 단숨에 죽 내리씀'이란 뜻으로 방랑시인 김삿갓의 흠집을 데 없는 뛰어난 글씨를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天衣無縫(천의무봉)의 '일부러 꾸민 데 없이 자연스럽게 아름답으면서 완전함'이라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입각한 그대로의 해석을 빈칸에 넣는 것이 뒤의 대목과 정확히 부합하는 옳은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天衣無縫(천의무봉)이 가장 적절한 한자성어이다.

天衣無縫(천의무봉) : 일부러 꾸민 데 없이 자연스럽게 아름답으면서 완전함

天 하늘 천, 衣 옷 의, 無 없을 무, 縫 꿰맬 봉

[오답 해설]

- ① 花朝月夕(화조월석): '꽃 피는 아침과 달 밝은 밤, 경치가 좋은 시절'을 이르는 말. = 朝花月夕(조화월석)
花 꽃 화, 朝 아침 조, 月 달 월, 夕 저녁 석
- ② 韋編三絶(위편삼절): '책을 열심히 읽음'을 이르는 말. = 手不釋卷(수불석권), 螢雪之功(형설지공)
韋 가죽 위, 編 엮을 편, 三 석 삼, 絶 끊을 절
- ④ 莫無可奈(막무가내): '달리 어찌할 수 없음을 이르는 말. = 莫可奈何(막가내하), 無可奈何(무가내하)
莫 없을 막, 無 없을 무, 가 가능할 가, 奈 어찌 내

3. 속담(1/4)

04. 서로 의미가 유사한 속담과 한자성어를 짝지은 것이다. 관련이 없는 것끼리 묶은 것은? (2019년 서울시 9급)

- ① 원님 덕에 나팔 분다 - 狐假虎威
- 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晚時之歎

- ③ 언 발에 오줌 누기 - 雪上加霜
- ④ 낮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 目不識丁

[정답] ③

[출제영역] 어휘 - 속담 + 한자 성어

[해설]

언 발에 오줌 누기: 언 발을 녹이려고 오줌을 누어 봤자 효력이 별로 없다는 뜻으로, 임시변통은 될지 모르나 그 효력이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사태가 더 나빠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위 속담과 유사한 한자성어는 '동족방뇨(凍足放尿)'로, '잠시 동안만 효력이 있을 뿐 효력이 바로 사라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뜻한다. 하지만, 설상가상(雪上加霜)은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로서, 위의 속담과 전혀 관련이 없다.

凍 얼 동, 足 발 족, 放 놓을 방, 尿 오줌 뇨
雪 눈 설, 上 위 상, 加 더할 가, 霜 서리 상

[오답 해설]

- ① '원님 덕에 나팔[나팔] 분다.'는 '남의 위세 덕에 자기까지 덩달아 호강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같은 속담으로는 '사도 덕분에 나팔분다.'가 있다. 따라서 '남의 위세 덕에 자기가 혜택을 본다'라는 의미에서 호가후위(狐假虎威)와 서로 의미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가호위호(假虎威狐) = 차호위호(借虎威狐)
狐 여우 호, 假 거짓 가, 虎 범 호, 威 위엄 위
- 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야 빈 외양간의 허물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떠다'를 이르는 말이다. 즉,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로 쓰인다. 따라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 일을 수습하려 하고, 후회한다'라는 의미에서 '만시지탄(晩時之歎/晩時之嘆)'과 서로 의미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같이천정(渴而穿井) = 십일지국(十日之菊) = 망양보뢰(亡羊補牢)
晩 저물만, 時 때 시, 之 갈 지, 歎 애통을 탄
- ④ '낮 놓고 기억 자도 모른다'는 기억 자 모양으로 생긴 낫을 보면서 도 기억 자를 모른다는 뜻으로, 아주 무식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낮 놓고 기억 자'를 모른다와 아주 간단한 글자인 '구무래 정' 자를 보고도 모른다는 의미에서, 아주 간단한 글자인 '丁' 자를 보고도 그것이 '구무래'인 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이르는 '목불식정(目不識丁)과 서로 의미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일문부지(一文不知) = 일문불통(一文不通) = 일자무식(一字無識)
目 눈 목, 不 아니 불, 識 알 식, 丁 구무래 정

해당 강의는 남부고시온라인(www.nambuonline.com)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합격하는 박문각 공무원 기출문제 시리즈

2020 박문각 기출문제 정채명 국어 기출종결자 김세현 영어 단원별 기출문제 노병석 한국사 기출문제 1894제 김진영 멘토형정법총론 기출문제 조은총 포스행정학 단원별 기출문제 정정사회 기출문제 400 오현준 정통교육학 단원별 기출문제





합격기준! 박문각 공무원!
현장강의 & 실시간라이브 강의
 5월 개강반 진행!



초시생을 위한 공부습관 잡아주기! **5월 11일 (월)개강**

박문각 9급 종합반

공통3과목
교재증정

[선착순]

9급 환급반 제외

수강료파격할인
9만9천원!

[~5/11일까지]

9급 환급반 제외

시 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8:00 ~ 09:00	환급반 아침 자습						
09:00~13:00	영 어	영 어	국 어	한국사	한국사		국제법 (윤경철) (09:30~)
		국 어					
14:00~18:00			행정법 (박두희)	행정법(박두희) (14:00~16:00) 행정학(조은종)	행정법 (김진영)		
18:40~22:10	행정학 (이경) (19:00~22:30)	행정학 (이경) (19:00~22:30)	행정법 (변원갑) (~21:40)	행정법 (변원갑) (~21:40)			

※ 시간표는 학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급반은 오전 8시부터 아침 자습시간입니다.

※ 동영상 제공 : 수학, 세법, 회계학(오준석,신은미), 교육학, 사회복지학, 정보보호, 컴퓨터일반, 형법, 형소법, 사회, 노동법

2개월 종합반 현장강의

99,000원 / 기술직 89,000원

2개월 실시간라이브강의 [실시간라이브강의+현장강의(옵션)]

99,000원 / 기술직 89,000원



실시간라이브 종합반이란?

실시간라이브강의는 학원에서 이뤄지는 기본이론강의를 동일한 시간에 라이브로 그대로 제공하는 강의입니다. 따라서, 가장 최신의 실강을 현장에서 듣는 것처럼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학습량을 2달 목표기간 동안 강제하여, 학습 시간관리를 통한 전체 수험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라이브강의는 **공통과목에 한해 진행합니다.** 학원 사정에 따라 라이브 진행이 되지 않는 과목은 기존 촬영된 동영상 강의를 별도 제공합니다.

※실시간 라이브강의를 들으시다 일부 과목 또는 전체과목을 현장강의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단, 현장강의로 전환한 과목은 다시 실시간 라이브로 재전환은 불가능합니다.



「2020년 공무원 영어」 출제예감 어휘정복 Voca Test(1)

| 정일현 교수 | 박문각남부 · 강남고시학원

정일현 영어

▶ 빠른 합격을 위한 공시생 스토리 '공시gogo' (<https://cafe.naver.com/gongsigogo>)

- ▶ [강남] PA(5-6월 7급 & 9급 영어 기본이론 단과)
 - 개강 : 2020. 5. 11
 - 시간 : [월] 09:00~13:00 [수] 14:00~18:00
- ▶ [강남] PB(5월) 7급 & 9급 영어 문제풀이 단과
 - 개강 : 2020. 5. 11
 - 시간 : [수] 14:00~18:00

※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

01.

Science can only be created by those who are **imbued** with the aspiration towards truth and understanding.

- ① filled ② stained
- ③ drained ④ equipped

02.

The magician was so **dexterous** that we could not follow him as he performed his tricks.

- ① sluggish ② adroit
- ③ wary ④ inept

03.

The voters are **apathetic** about the candidate, a former secretary of Treasury, running for office.

- ① infamous ② indifferent
- ③ ingenious ④ keen

04.

Every physician treats some patients from whom he expects no **pecuniary** reward.

- ① small ② considerable
- ③ financial ④ legitimate

05.

Victor didn't know what to say. The teacher wet his lips and asked something else in French. The room grew silence. Victor felt all eyes staring at him. He tried to **bluff his way** out by making noises that sounded French.

- ① deceive ② lament
- ③ rejoice ④ cogitate

06.

As young infants, they come set with abilities to make a lot of fine discriminations, and they continue to **astound** us.

- ① startle ② exacerbate
- ③ extirpate ④ deride

07.

Even in its most **benign** forms, even without physical violence, racism is a vicious emotional assault that is not inherent.

- ① steady ② crucial
- ③ genial ④ factitious

※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08.

All of a sudden, Susan felt tired of her _____ daily routine and determine that she would leave for a change.

- ① unanimous ② feasible
- ③ anonymous ④ tedious

09.

A person who works with you on a certain project may be called a _____.

- ① assistant ② deputy
- ③ companion ④ plaintiff

[정답 및 해설]

01. [정답] ①

[해석] 과학은 진실과 이해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의해서만 창조될 수 있다.

[어휘] imbue (사상, 감정 따위를) 불어넣다, 고취시키다 (= infuse, ingrain, inoculate, fill) 물들이다 (= dye, stain, tinge, color) aspiration 열망 (= desire) stain 더럽히다, 얼룩지게 하다 drain 배수하다, 고갈시키다

02. [정답] ②

[해석] 그 마술사는 너무 손재주가 좋아서 우리는 그가 묘기를 보일 때 그를 따라갈 수 없었다.

[어휘] dexterous 손재주가 있는, 솜씨 좋은(=skillful, adroit) sluggish 느린, 활발하지 않은 wary 경계하는 inept 부적당한 magician 마술사 trick 마술, 속임수

03. [정답] ②

[해석] 유권자들은 전 재무장관인 그 후보가 입후보하는 것에 냉담하다.

[어휘] apathetic 무관심한(= indifferent = unconcerned) infamous 악명 높은, 수치스러운 ingenious 영리한 secretary of Treasury 재무장관 keen 날카로운, 갈망하는

04. [정답] ③

[해석] 모든 내과의들은 아무런 금전적인 기대를 하지 않고 돕는 환자들이 있다.

[어휘] pecuniary (financial의 학술적 표현어) 재정상의, 금융의 considerable 많은, 상당한, 중요한 legitimate 합법의, 법률상의

05. [정답] ①

[해석] Victor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선생은 입술을 적셨고 불어로 다 른 것을 물어보았다. 그 방은 고요해졌다. Victor는 모든 눈들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불어와 같이 들리는 소리를 만들어냄으로써 속이려 했다.

[어휘] bluff one's way 속여서 ~하다 lament 슬퍼하다 rejoice 기쁘게 하다; 기뻐하다 cogitate 생각하다, 숙고하다

06. [정답] ①

[해석] 어린 유아로서 그들은 많은 미세한 구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놀라게 하고 있다.

[어휘] astound 깜짝 놀라게 하다. (=astonish, amaze, startle, surprise) exacerbate 악화시키다 extirpate 근절시키다 deride 놀리다, 조롱하다

07. [정답] ③

[해석] 인종차별은, 가장 온화한(부드러운) 방식에서조차 신체적인 폭력 없이 정서적인 공격을 하는 악의적인 행위로서, 그건 사람들에게 내재된 본성이 아니다.

[어휘] benign 인자한, 상냥한, 친절한(=genial) steady 단단한, 안정된, 흔들리지 않는 crucial 중대한, 결정적인; 어려운 factitious 인위적인, 인공적인

08. [정답] ④

[해설] 싫증이 났다는 말과 변화를 위해 떠났다는 말 사이에 부정적인 혹은 지루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문맥상 가장 적절하다.

[어휘] 갑자기 Susan은 그녀의 단조로운 일상에 싫증이 났고 변화를 위해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어휘] all of a sudden 갑자기 feel(be) tired of ~에 대해 싫증나다 daily 매일의 routine 일상적인; 일상 determine 결정하다 unanimous 만장일치의 feasible 실행 가능한 anonymous 익명의 tedious 지루한, 단조로운

09. [정답] ③

[해석] 어떤 사업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을 동료라고 부를 수 있다.

[어휘] companion 동료 (=colleague ↔ opponent) assistant 조수, 보좌관 deputy 대리인, 부관 plaintiff 원고, 고소인

박문각스파르타

ALL-CARE 기숙 연계반

5월 개강 문제풀이반 모집

2020년 공무원 합격, 아직 늦지 않았다

학습 및 자습 분위기 **최상** / 집중도 **최상** / 만족도 **최상**



수강생 특별 혜택

- 수강 할인** 수강료 25%할인
- 전원 증정** 순공 합격플래너 증정
LED 스탠드 증정
- 전원 제공** 갤럭시 TAB 제공 (등록기간 내 제공)





한국사 지역사 완전정리 특강(20)

| 남택범 교수 | 박문각남부 · 강남고시학원

V. 경상 · 경주 · 평양

[1] 경상도

01. 지명

1. 어원

‘경상’이라는 지명은 고려 때 이 지방의 대표적 고을인 경주와 상주 두 고을의 머리 글자를 합하여 만든 합성지명이다. 또 다른 명칭으로는 영남지방이라고 부른다. 영남이란 명칭은 소백산맥의 죽령(竹嶺:689m)과 조령(鳥嶺:새재, 548m) 등 큰 고개의 남쪽에 있다는 데서 생긴 지명이다.

2. 시대별 명칭

명칭	시기	특징
영남도(嶺南道) 영동도(嶺東道) 산남도(山南道)	산남도(山南道)	전국을 10도로 나눌 때 상주 관할을 영남도(嶺南道), 경주·금주(金州: 지금의 김해) 관할은 영동도(嶺東道), 진주 관할은 산남도(山南道)
경상진주도(慶尙晉州道)	1106년(예종 1년)	위의 3도 통합, 경주·상주·진주의 머릿글자를 합한 이름
경상주도(慶尙州道)	1171년(명종 1년)	이후 상진안동도(尙晉安東道)·경상진안도(慶尙晉安道)
경상도(慶尙道)	1314년(충숙왕 1년)	
경상좌도(慶尙左道) 경상우도(慶尙右道)	1407년(태종 7년) 1592년(선조 25년)	
경상북도(慶尙北道) 경상남도(慶尙南道)	1896년(고종 33년)	

02. 선사 시대

유적지	유적지
부산 동삼동 조개무덤	신석기 유적, 기하학무늬 토기, 민무늬 토기, 흑요석기 등 출토
김해 수가리 조개무덤	신석기 유적, 빗살무늬 토기, 골각기, 흑요석기 등 출토
사천 녹도 유적	청동기 유적, 독무덤, 움무덤, 인골출토, 야요이식 토기, 철제품(한반도 남부 최고)
울주 천전리 각석	기하학적 무늬와 동물, 추상화된 인물 등이 조각, 신라 시대 글(법흥왕 때 추정)
울주 대곡리 암각화	육지동물과 바다고기를 사냥하는 장면 등 총 75종 200여점의 그림
울주 감단리 유적	청동기 마을유적, V 형태의 환호
울산 옥현동 유적	청동기 마을유적, 42개의 토층에서 청동기부터 삼국시대, 조선시대 까지 는 유적 발견

03. 삼국 시대

1. 부산 복천동 고분군

부산 복천동 일대에 있는 가야시대의 고분군으로 3세기에서 7세기까지 조성되었다. 무덤의 형식은 소형 덧널무덤(土壙木槨墓) 8기, 돌무지덧널무덤(積石木槨墓) 1기, 구덩식돌방무덤(竪穴式石室墓) 8기, 구덩식돌덧널무덤(竪穴式石槨墓) 18기 등이 확인되었다.

2. 고령 지산동 고분군

경북 고령에 있는 대가야시대의 고분군으로, 외형상으로는 모두 원형봉토분(圓形封土墳)이다. 고분군은 내부구조에 의해 돌널무덤(石箱墓)·돌덧널무덤(石槨墓)·돌방무덤(石室墓)으로 크게 분류된다.

3. 창녕 진흥왕 척경비

창녕 진흥왕 척경비는 신라 진흥왕이 영토를 개척하고 창녕에 행차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561년에 세워졌다. 비면은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하였고 글자를 새긴 면만 다듬었다. 이 비문에는 주요 관직명이 나오고 군주, 당주, 도사 등 지방관도 열거되어 당시 행정체계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4. 신문왕의 달구벌 천도

신문왕은 진골귀족세력을 대표하는 김흠돌(金欽突)의 난을 진압한 후 전제정치를 뒷받침하는 정치·군사제도를 정비하였다. 681년 10월에 시위부(侍衛府)를 개편하여 장군 6명을 두었고, 이어 국왕의 직속부대인 9서당(九誓幢)을 설치하였다. 682년에는 국학(國學)을 설치하여 관료의 양성을 통해 왕권의 세력기반을 보다 확충시켜 나갔다. 그 밖에 왕족 김씨의 족내혼(族內婚) 실시, 9주(九州) 5소경(五小京)의 정비, 문·무 관료전(官僚田)의 시행(687)과 녹읍의 혁파(689) 등을 통해 전제왕권을 확립해 나갔다.

신문왕은 이러한 정치개혁을 바탕으로 689년(신문왕 9) 도읍지를 달구벌로 옮기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달구벌은 먼저 지리적 측면에서 천도 후보지로서 적합하였다. 첫째, 달구벌은 주변에 분포한 팔공산 등 큰 산들이 분포해 있어 방어에 유리한 분지지역이었다. 둘째, 달구벌은 소백산맥을 넘어 서북방과 서남방으로 진출하기에 편리한 주요 교통로 상에 위치한 잇점이 있었다. 셋째, 농경지대로 농업생산력이 풍부하고, 낙동강 수계와 그 지류를 끼고 있어 수륙교통의 요충지로서 조운(漕運)을 통한 물자 수송이 편리하다는 점도 작용하였다. 또한 달구벌이 신라 오악(五嶽) 가운데 중앙(中嶽)인 팔공산을 끼고 있는 지역으로서 신라 중대(中代) 왕실의 세력기반과 관련이 있다는 점, 무열왕계에 대적할 만한 큰 토착세력이 존재하지 않은 점, 신·구 수도 상호관계에서 대구지역은 경주와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지리·경제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고 경주와 가까우며 왕실세력과 관련이 있는 달구벌을 새 수도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천도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과, 수 백년의 연고지역을 일시에 떠나기 어렵고, 서라벌에 오랜 토대를 가진 전통 진골귀족들의 강한 반발로 천도계획은 실패하였다.

5. 원종·애노의 난

889년(진성여왕 3년) 신라 사벌주(沙伐州: 지금의 상주)에서 일어난 농민항쟁으로, 신라는 하대 이후 진골귀족간의 왕위쟁탈전이 계속되면서도 경주를 중심으로 사치·향락의 풍습이 만연하여 지방에 대한 착취가 더욱 가혹하여졌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점차 토지로부터 이탈되어 갔고 중앙의 정치기강은 문란해졌으며 지방에 대한 통제력도 약화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마침 흉년으로 기근이 일어나자 지방의 주군(州郡)에서 조세를 바치지 않아 국고가 텅 비었고, 재정의 궁핍이 심하였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관리를 파견하여 조세를 독촉하였으나, 오히려 곳곳에서 조세의 납부를 거절하고 농민봉기가 발생하였는데, 원종·애노의 난은 그 중 최초의 것이다. 이 난이 발생하자 중앙정부는 나마(奈麻) 영기(令奇)를 파견하여 진압하게 하였으나, 농민군의

기세에 눌려 제대로 싸워 보지도 못하였다. 이 난은 신라 중앙정부가 더 이상 지방을 통제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6. 안동 법흥사지 전탑(신세동 7층 전탑)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통일신라시대 전탑(轉塔)이다. 이 탑은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법흥사에 속해있던 탑으로 추정되나, 탑 주위로 민가와 철도가 들어서 있어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명칭에는 신세동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탑이 있는 곳은 법흥동이다.

통일 신라 시대 안동 지방에서는 유독 전탑이 많이 제작되었다. 안동 지방의 전탑으로는 안동 운흥동 오층전탑,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등이 남아있다.

7. 밀양 표충사

표충사는 654년(태종무열왕 1) 원효대사가 창건하여 죽림사(竹林寺)라 하였으며, 829년(흥덕왕 4) 인도의 승려 황면선사(黃面禪師)가 현재의 자리에 중창하여 영정사(靈井寺)라 이름을 고치고 3층 석탑을 세워 부처의 진신사리(眞身舍利)를 봉안한 것으로 전한다. 1286년(충렬왕 12)에는 일연(一然) 국사가 1,000여 명의 승려를 모아 불법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1839년(헌종 3) 사명대사의 법손(法孫)인 월파선사(月坡禪師)가 사명대사의 고향인 무안면(武安面)에 그의 충혼을 기리기 위해 세워져 있던 표충사(表忠祠)를 이 절로 옮기면서 절 이름도 표충사라 고치게 되었다.

원래 표충사 사당이 너무 궁벽한 곳에 있어 향사와 관리가 불편해지자 천유대사가 영정사로 옮길 것을 나라에 건의하였고, 유교적인 서원으로서의 제도와 규범을 사찰 내에서도 엄수할 것을 서약하였기에 사찰 내부로 서원이 들어올 수 있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도 향사 절차는 유교식으로 지내는 전통이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표충사에서 표충사(表忠祠) 이전 당시의 서원 형태는 조금도 남아 있지 않다. 현재 은입사 기술로 제작된 청동향원을 비롯하여 사명대사의 유품 여러 점과 김정희의 수제자 신현이 쓴 서재각, 보화루, 무량수각 등의 현판이 남아있다.

8. 울산 태화사와 학성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에 있는 조선시대의 왜성(倭城)으로, 이 성은 정유재란 당시 남해안까지 패퇴한 왜군의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가 방위선을 구축하기 위하여 축성한 것으로, 울산읍성과 병영성을 합쳐 총망한 것이었다.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는 성곽 축조 직후인 1597년 12월 22일부터 이듬해 1월 3일까지 이곳에서 조·명 연합군과 왜군의 격렬한 전투가 벌어져 서로 수많은 희생자를 냈으며, 그 뒤 9월에도 전투가 있었으나 피차 이득 없이 끝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사망소식을 들은 가토가 11월 15일 부산성으로 옮겨감으로써 학성은 성으로서의 기능을 마치게 되었다. 왜군이 학성을 쌓기 전에도 본래 이곳에는 신학성(神鶴城) 또는 계변성(戒邊城)이라고 불리던 우리 성이 있었다고 하나 그 흔적을 찾아보기는 더욱 힘들다.

현재는 학성 공원으로 불리고 있는 이 곳에는 매우 특이한 형태의 태화사터 십이지상 승탑(부도)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석조형 부도로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이 부도는 원래 학성공원에서 태화강을 거슬러 올라간 태화동 반골(반탕골) 산기슭에 묻혀 있었는데 1961년에 발견되어 1974년 지금의 자리로 옮겨왔다.

태화사는 “선덕여왕 12년(643)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부처의 머리뼈와 어금니와 사리 100알과 부처가 입던 붉은 길에 금점이 있는 가사 한 벌을 가지고 왔다. 그 사리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한 부분은 황룡사 탑에 두고 한 부분은 태화사 탑에 두고 한 부분은 가사와 함께 통도사 계단에 두었다”는 『삼국유사』의 내용으로 미루어보면, 태화사는 자장율사가 부처의 사리를 나누어 봉안한 곳으로, 황룡사나 통도사와 견주어도 결코 기울지 않는 대찰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내의 태화루라는 누각이 울산의 제일 명승지로 꼽힐 정도로 절경이었다고 하나, 절이 먼저 폐사되고 누각만이 한동안 남아 있다가 임진왜란으로 불탄 뒤 누각마저 없어지고 지금은 서거정이 썼다는 태화루의 현판만이 신정동 이휴정에 보관되어 있다.

PMG 박문각강남고시학원

9급 국가직 · 지방직 대비

동형 모의고사

- 오전 영어 TEST
- 이론 핵심 요약
- 동형 모의고사
- 주간 복습 TEST



행정학 조은종 영어 정일현 국어 최석만 한국사 현창원 행정법 김진영 사회 이창권

	월	화	수	목	금	토
8:50~9:10	영어 Test					
09:15~13:00		한국사	영어	국어		행정법
14:00~18:00	사회		행정학	주간Test		

지방직 대비 수강료: 25만원 (4회 완성, 복습동영상 제공)

국가직 대비 수강료: 20만원 (3회 완성, 복습동영상 제공)

PMG 박문각강남고시학원
강남역 10번출구 100m 대우벨라체 2층

02) 3476-6030
www.gangnamgosi.com



술술술 한자 & 속담(20)

| 전선혜 교수 - 선혜국어 네이버 카페
| 박문각남부강남고시학원 <http://cafe.naver.com/jshgotgan>

한자성어 편 - 계명구도(鷄鳴狗盜)

[훈과 음]

鷄 닭(계) 鳴 울(명)
狗 개(구) 盜 훔칠(도)

[성어의 의미]

닭의 울음소리를 잘 내는 사람과 개의 흥내를 잘 내는 짐도둑이라는 뜻으로,

- ① 천한 재주를 가진 사람도 때로는 요긴하게 쓸모가 있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 ② 비굴하게 남을 속이는 하찮은 재주 또는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을 이르는 말.

[고사]

제(齊)나라의 맹상군은 재상(宰相)이 되었을 때 천하의 인재를 초빙하여 식객¹⁾이 삼천 명에 이르렀다. 어느 날 진나라 소왕(昭王)의 부름을 받아 사신으로 갔다가 호백구(狐白裘)²⁾를 선물했다. 소왕은 맹상군을 임명하려 했지만 진나라의 많은 신하들이 반대하여 좌절되었다.

한편 맹상군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진나라 세력의 음모를 알아차리고 소왕의 애첩 총희를 달래 진나라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총희는 그 대가로 호백구를 요구했다. 마침 맹상군의 식객 중 개 흥내로 도둑질에 능한 사람이 있어서 말하기를

“신이 능히 호백구를 얻어 오겠습니다.”

하고 밤에 개 흥내를 내어 진나라 궁의 창고로 들어가서 맹상군이 바쳤던 호백구를 도로 취하여 그녀에게 주니 그녀가 왕에게 간청하여 석방될 수 있었다.

맹상군이 그곳을 빠져나와 밤중에 함곡관에 이르니 닭이 울어야 객을 내보낸다는 관법으로 통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때 식객 중에 닭

울음소리를 잘 내는 자가 있어 ‘꼬끼오’ 소리를 내니 모든 닭이 따라 울어 관문이 열리고 무사히 통과하여 제나라로 올 수 있었다.

나중에 소왕은 맹상군의 귀국을 허락한 것을 누우치고 병사들을 보내 뒤쫓게 했으나, 맹상군은 이미 관문을 통과한 뒤라 소용이 없었다.

- 출전 『사기(史記)의 맹상군전(孟嘗君傳)』

[유의어]

鷄鳴之客 닭(계) 울(명) 어조사(지) 손님(객)

[확인 학습]

1. 밑줄 친 부분의 한자가 다른 하나는?

- ① 계명구도 ② 계구우후
- ③ 금란지계 ④ 군계일학

정답은 ③이다. 금란지계(金蘭之契)는 친구 사이의 매우 두터운 정을 이르는 말로 ‘뜸 땀을(계)’를 쓴다. 나머지 ① 계명구도(鷄鳴狗盜), ② 계구우후(鷄口牛後), ④ 군계일학(群鷄一鶴)은 모두 ‘鷄 닭(계)’를 쓴다. ‘계구우후’는 닭의 주둥이와 소의 꼬리라는 뜻으로, 큰 단체의 꼴찌보다는 작은 단체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오히려 나음을 이르는 말이며, ‘군계일학’은 닭의 무리 가운데에서 한 마리의 학이란 뜻으로,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난 인물을 이르는 말이다.

- 1) 세력 있는 대갓집에 얹혀 있으면서 밥을 얻어먹거나 덕을 볼까 기대하며 지내던 사람
- 2) 여우 겨드랑이의 흰 털이 있는 부분의 가죽으로 만든 가죽옷

‘SPEED’ 영단어 암기(51)

261. **elegance**

: 우아함
(형) elegant : 우아한, 품위 있는
(부) elegantly : 우아하게

▷ The furniture managed to combine practicality and elegance.
(그 가구는 실용성과 우아함을 그럭저럭 조화시켰다.)

262. **fabric**

: 구조, 체제, 조직, 구성(structure); 천, 직물
▷ Stains can't hurt that fabric..
(저 직물은 얼룩에도 손상되지 않는다.)

263. **good**

- ① 훌륭한, 좋은, 즐거운
▷ Have a good time!
(즐거운 시간 되세요!)
- ② 적당한 (=suitable)
▷ It's a good day for a drive.
(드라이브하기에 적당한 날이다.)
- ③ 친절한 (=kind), 도움이 되는 (=helpful)
▷ He has always been very good to me.
(그는 언제나 나에게 아주 친절했다.)
- ④ 능숙한 (=skillful)
▷ She is a good skier.
(그녀는 스키를 잘 탄다.)
- ⑤ (수적으로나 양적으로) 많은, 충분한
▷ David earned good money and soon came to have a feeling of economic independence.
(David는 많은 돈을 벌었고 곧 경제적으로 독립했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 ⑥ 선, 미덕
▷ You must learn the difference between good and evil.
(너는 선과 악의 차이를 배워야 한다.)
- ⑦ 이점, 장점, 이로운 것
▷ Milk does you good.
(우유는 너의 몸에 좋다.)

264. **horrify**

: 소름끼치게 하다, 무서워 떨게 하다
▷ The sound horrified us all.
(그 소리가 우리를 소름끼치게 했다.)



합격의 기준

2020 박문각
공인노무사

현직 공인노무사 · 과목별 전문 교수진의 저자직강

1차

실전 문제풀이반

유형별 문제풀이를 통해 실전 적응력 향상

&

2차
GS2기

실전모의고사 + 핵심정리

진도별 모의고사를 통한 답안작성 해결능력 연습



검색창에서 **박문각올패스** 를 검색하세요!

2020 한국산업의 1등 브랜드 대상 수상 / 2019 한국우수브랜드 평가대상 / 2018 대한민국 교육산업 대상 교육서비스 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고객만족 브랜드 대상 / 2017 한국소비자선호도 1위 브랜드 대상 / 2016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 브랜드스탁 BSTI 브랜드 가치평가 1위

수강기간 내내 제약없이 마음껏 수강할 수 있는 **진짜 무한수강**
출시기념 이벤트
20만원 교재지원금 즉시지급!



박문각 올패스 보기



원

박문각 2년 올패스

* 제세공과금 및 부가제공혜택 제외 후 현금 환급

구매자 특별 혜택

21기 ~5월 14일(목)까지!

박문각 1등 교수진이 직접 출제한
봉투 동형 모의고사 무료



무료
배송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최신 2개년
봉투 기출 모의고사 무료



무료
배송

PMG 박문각

**교재지원금
20만원**

44만원
지원

코로나19 극복 응원 긴급 학습비 지원

**노량진 학습관
2개월 이용권 제공**



「2020년 시험대비」 최근 3개년 헌법판례(8) (~19년 7월.)

| 김건호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2-16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p.70)

【 기출 OX 】

01. | 2019년 경정 승진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이 입국불허되어 송환대기실 내에 수용된 외국인에게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은, 청구인이 자진출국으로 송환대기실을 벗어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구금'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접견거부 위헌 확인사건 (헌재 2018. 5. 31. 2014헌마346)

청구인은 이 사건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가 있었을 당시 행정기관인 피청구인에 의해 송환대기실에 구속된 상태였으므로,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 현행법상 청구인의 변호인조력권 제한의 근거 법률이 없다. 이 사건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다. ... 이 사건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는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기본권 제한 조치로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는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정답: X]

02. | 2019년 국회직 8급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또는 강제퇴거의 절차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접견거부 위헌 확인사건 (헌재 2018. 5. 31. 2014헌마346)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의 문언 및 헌법 제12조의 조문 체계, 변호인 조력권의 속성, 헌법이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 종래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또는 강제퇴거의 절차에도 적용된다고 보았다고 판시한 우리 재판소 결정은, 이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한다.

[정답: X]

03. | 2019년 국회직 8급 |

'변호인으로 선임된다' 뿐 아니라 '변호인이되려는자'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변호인이되려는자'의 접견교통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 사건 (헌재 2019. 2. 28. 2015헌마1204)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권리로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하여 이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검사의 접견불허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도 인정된다. ... 이상과 같이 이 사건 검사의 접견불허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본권 침해 가능성도 인정되며, 보충성 원칙의 예외도 인정되고, 그 외 적법요건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하다.

[정답: O]

04. | 2019년 법원직 9급 |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연히 접견교통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는 그 제한이 가능하다.

(대법원 2017. 3. 9. 2013도16162)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05. | 2019년 법원직 9급 |

접견교통권이 그 보장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의 헌법상 기본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2019년 법원직 9급 |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구체적인 시간적·장소적 상황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접견하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7. 3. 9. 2013도16162)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신체 구속제도 본래의 목적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므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구체적인 시간적·장소적 상황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접견하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의 헌법상 기본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정답: O, O]

06. | 2019년 경정 승진 |

구치소장이 변호인 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는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변호인 접견실에서 CCTV를 설치하여 관찰한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수수한 서류 확인 및 등재 행위 위헌확인 사건 (헌재 2016. 4. 28. 2015헌마 243)

금지물품의 수수나 폭행 등 교정사고를 방지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접견실 또한 계호할 필요가 있으며,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교도관의 육안에 의한 시선계호를 CCTV 장비에 의한 시선계호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CCTV 관찰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따라서 이 사건 CCTV 관찰행위는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O]

07. | 2019년 경정 승진 |

'피고인 등'에 대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헌재 2016. 12. 29. 2015헌마221)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절차에서 소환된 증인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증인을 보호하고 실제진실의 발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인 등에 대해서 차폐시설을 함으로써 증인의 인적 사항 등을 보호하는 것은 증인의 안전 및 자유로운 진술을 보장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 출제예상 】

01.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인 청구인이 위 피의자 가족의 의뢰를 받아 접견 신청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이를 허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변호인이 되려는 청구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이 고위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 (헌재 2019. 2. 28. 2015헌마1204)

청구인은 피청구인 검사에게 접견신청을 하고 검사실에서 머무르다가 이 사건 검사의 접견불허행위로 인하여 결국 피의자 윤○현을 접견하지 못하고 검사실에서 퇴실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위 피의자에 대한 접견교통권이 제한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피의자 윤○현은 당일 야간에 계속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을 예정이었으므로 피의자신문에 앞서 검사실 또는 별도로 마련된 변호인 접견실에서 청구인과 위 피의자의 접견교통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당시 구체적인 시간적·장소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변호인이 되려는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체구속제도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 행사를 남용하려고 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③ 변호인 등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으로써는 물론 법률로써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나,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접견시간 조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피의자신문중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조항을 근거로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을 불허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청구인의 피의자 윤○현에 대한 접견신청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 보장된 접견교통권의 행사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이 사건검사의 접견불허행위는 헌법이나 법률의 근거 없이 이를 제한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 다음호에 계속 ... >

일행 / 교행 / 회계 / 세무 / 관세 / 감사 / 교정 / 검찰 / 출입국 / 외무영사 / 전산직 / 선관위 / 고용노동부

박문각 7급팀 이론종합반

5월 11일(월)개강

수많은 선배 합격생들의 선택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7급 공무원이 되기 위한 후회없는 선택이 되도록 남부 7급의
검증된 교수진과 학습 시스템으로 합격을 이끌겠습니다.

상담서비스 **TALK**

카톡상담

※ 박문각을 검색하세요.

고용노동부
강좌 개설!



PSAT 이지윤, 박성진 행정법 박제인 행정법 박두희 행정법 변원갑 국제법/국제정치학 윤경철 회계학 오준석 회계학 신은미 교육학 오현준 교정학 김지훈 형소법 김상천 형법 오상훈 전산직 손경희 노동법 김광훈
국어 이유진 국어 전선혜 영어 김세현 영어 허더진 한국어 선우빈 헌법 김건호 헌법/세법 이수천 헌법/국제법 이만복 경제학 함경백 경제학 김동빈 경제학 조경국 행정학 신용한 행정학 이경 행정학 이명훈

- 2021 국가직 합격반 **PSAT + 전문4과목**
- 2021 지방직/서울시 합격반 **국어 + 전문4과목**
- 2021 국가직/지방직/서울시 ALL-Inclusive 합격반 **PSAT + 국어 + 전문4과목**

7급시험에 최적화된 합격설계 시스템! 박문각에서 만나보세요

- ! ? 공무원 시험은 첫 시작부터 끝까지 수업과 자습의 시간배분 비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화할 수 없을 만큼의 무리한 수업은 학습의 질과 공부 의욕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수업은 명확한 개념 이해, 그리고 복습은 최대한의 시간 확보가 중요합니다. 1회독부터 가장 효율적인 방법, 48년 전통 박문각과 함께할 이유입니다.
- ! ? 매주 진도별 테스트를 통해 복습과 문제 적용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한주간 배운 내용을 테스트를 통해 점검하고, 취약점을 분석 및 보완하여 보다 효과적인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 ! ? 담임 멘토링 관리로 시험 생활에서 남들보다 앞서가는 노하우를 빠르게 익힙니다. 의지만큼 실천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교수님 1:1 상담 그리고, 담임 멘토링 관리를 통해 선배 합격생들의 합격 노하우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초시생을 위한
부담ZERO이벤트

PSAT입문과정
교재증정
(선착순)

수강료파격할인
16만원!
(~5/11일까지)



<합격으로 가는 행정법> 판례특강(20)

박두희 교수 | 박문각남부·종로고시학원

제 2편 행정작용법

테마 24. 부관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개발제한구역 내행위허가(기간연장)신청불허가처분취소】 [18년 지방직 9급] [18년 지방직 7급] [16년 지방직 7급] [14년 지방직 9급] [공2004.5.1.(201),726]

【판시사항】

- [1]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과 부관의 허용 여부(적극) 및 그 내용적 한계
- [2] 허가에 붙은 당초의 기한이 상당 기간 연장되어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여부의 재량권을 가진 행정청이 기간연장을 불허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 [3]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진 행정청이 그 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였다고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1]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와 같은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2000. 7. 4. 건설교통부령 제2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구역지정의 목적상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이러한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이 그 규정의 체제와 문언상 분명하고, 이러한 예외적인 개발행위의 허가는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것이 틀림이 없으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고, 이러한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건이나 기한,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그 부관의 내용이 이행 가능하고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며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2]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며,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당초에 붙은 기한을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더라도 그 후 당초의 기한이 상당 기간 연장되어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존속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볼 경우 더 이상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여부의 재량권을 가진 행정청으로서 그 때에 도허가조건의 개정만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량권의 행사로서 더 이상의 기간연장을 불허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로써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 [3]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진 행정청이 그 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였다고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9.2.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약정금】

[공2009상,301] [19년 국가직 7급] [19년 서울시 9급] [19년 지방직 9급] [18년 서울시 9급] [18년 지방직 7급] [17년 국가직 9급] [16년 지방직 7급] [15년 지방직 9급] [14년 국가직 9급]

【판시사항】

- [1]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관으로 부담을 붙이는 방법
 - [2]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 위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 [3] 부당결부금지 원칙의 의미
 - [4] 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하였고, 그 후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된 사안에서, 위 협약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협약에 포함된 부관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 [1]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 [2]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얻기 위하여 행정청과 사이에 행정처분에 부가할 부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으나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곧바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3]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 [4] 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하였고, 그 후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된 사안에서, 위 협약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협약에 포함된 부관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다63966 판결 【약정금】

[공2010상,81] [19년 국가직 7급] [19년 서울시 9급] [18년 국가직 7급] [14년 국가직 9급] [13년 지방직 7급] [12년 국가직 7급] [12년 지방직 7급] [10년 국가직 9급]

【판시사항】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기부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외관상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허용 여부(소극)
- [2]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3]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지급받기로 한 증여계약은, 공무수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 [1] 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1995. 12. 30. 법률 제5126호 기부금

품모집규제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공무원은 여하한 명목의 기부금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5. 12. 30. 전부 개정된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2006. 3. 24. 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고, 비록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접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은 기부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사이에 외관상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사실상 공권력의 영향력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그러한 의심을 자아내는 경우가 있음을 경계하여 직무 관련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이를 금지함으로써 공무의 순수성과 연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는바, 하물며 직무와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기부행위라면 이는 결코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2] 공무원이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그 처분과 관련하여 이른바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담은 법치주의와 사유재산 존중, 조세법률주의 등 헌법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만 적법한 것인바,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위와 같은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 [3]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지급받기로 한 증여계약은 공무수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본 사례.

* 대법원 1991.12.13. 선고 90누8503 판결 【공유수면매립빈지 국유화처분취소】

[공1992.2.1.(913),534] [19년 지방직 9급] [16년 국가직 7급] [16년 지방직 7급] [14년 지방직 9급] [14년 서울시 7급]

【판시사항】

-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처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바, 행정청이 한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처분을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 대법원 2009.6.25. 선고 2006다1817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09하,1189] [19년 국가직 9급] [16년 국가직 9급] [16년 지방직 9급] [16년 지방직 7급] [16년 서울시 9급] [16년 교육행정직 9급] [15년 지방직 9급] [13년 지방직 7급] [12년 국가직 7급]

【판시사항】

- [1]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 도과로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룰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는 있지만,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법률행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법률행위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행정처분에 붙은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어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경우 외에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지만,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부담의 불가쟁력의 문제와는 별도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위반이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소방 준비생이라면, 시작 앞에 감히 망설이지 말라!

박문각 소방직 혁명!

5~6월 소방관리반

2차 선착순 모집! (~5/10일까지)

5월11일(월)개강



소방 합격을 위한
소방관리 시작반의
특별한 혜택

- 기초영어 무료**
영어 수준별 집중강화 프로그램
- All Pass**
소방직 전용 올패스 인강 제공
- 체력학원 연계**
하반기 체력 집중강화 프로그램
- 면접 지원**
최종합격까지 서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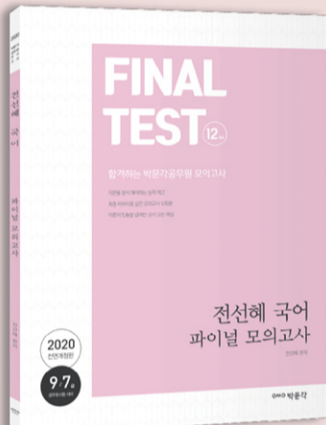
박문각 5월 시작반
역대급 혜택으로
소방직 도전!

5월 시작반 수강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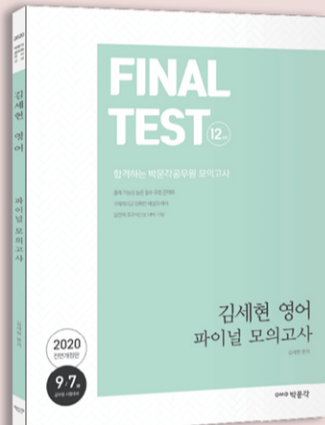
소방관리 - 시작반 2개월 0원	기속연계반 2개월 150만원
소방관리 - 6개월 이론완성 패키지 60만원	기속연계반 6개월 480만원
소방관리 - 12개월 연간반 150만원	기속연계반 12개월 연간반 990만원

202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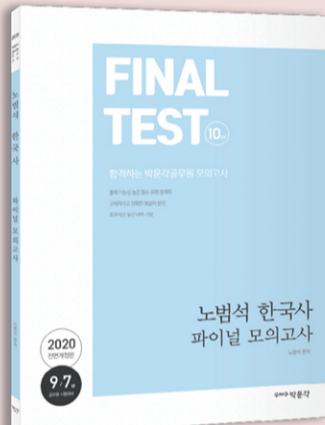
합격하는 박문각 공무원 모의고사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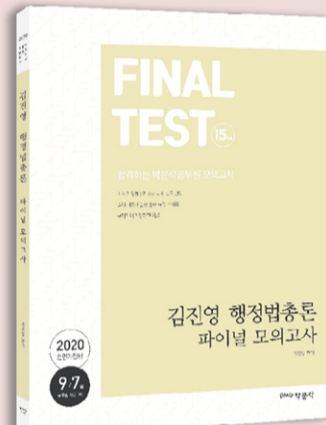
전선헌 국어 파이널 모의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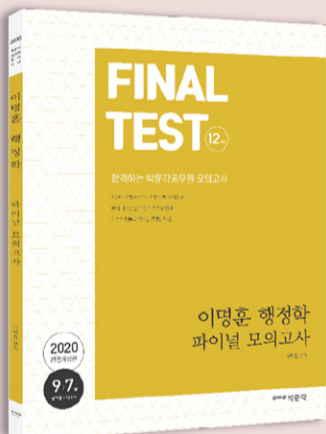
김세현 영어 파이널 모의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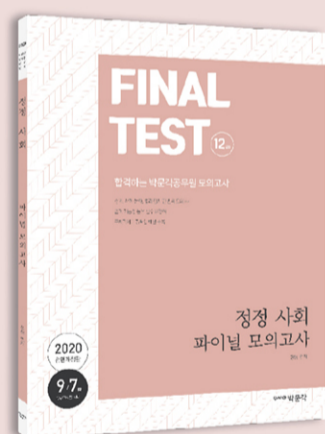
노범석 한국사 파이널 모의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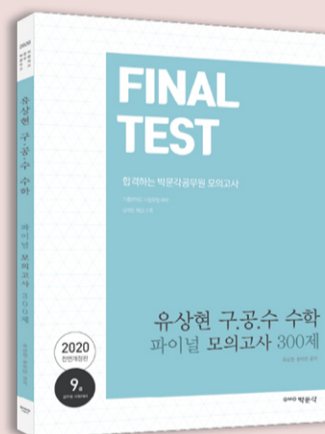
김진영 멘토행정법총론 파이널 모의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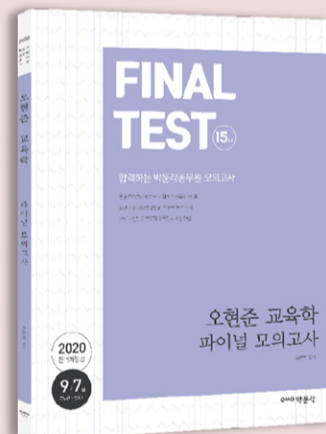
이명훈 행정학 파이널 모의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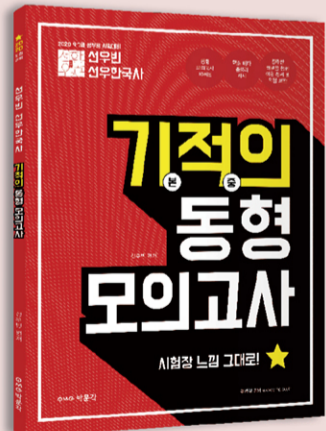
정정 사회 파이널 모의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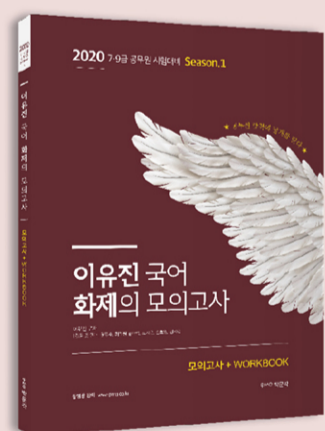
유상현 구.공.수 수학 파이널 모의고사 300제



오현준 교육학 파이널 모의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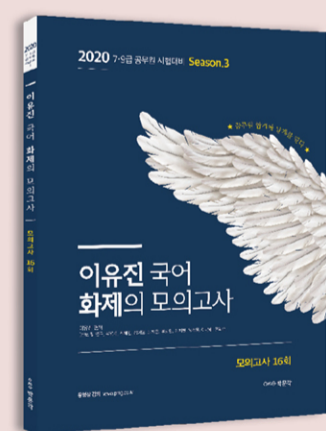
선우빈 기적의 동형모의고사



이유진 화제의모의고사 시즌1



유진 화제의모의고사 시즌2



유진 화제의모의고사 시즌3

실시간라이브 ▶ 수업진행!



박문각 5-6월 7·9급 이론종합반
코로나19 고통분담 이벤트!

초시생 부담 ZERO

9급 종합반 2개월 99,000 원

EVENT 01

종합반 공통 3과목

강의교재

부담 ZERO

(9급 환급반/소방직 제외)

EVENT 02

수강료

파격할인

9만9천원!

(~5/11일 까지)

EVENT 03

부담 ZERO

영어 점수 만들기

영어 기초 강의
동영상 제공



초시생 부담 ZERO 이벤트 이용방법!

- ※ 이벤트 교재는 선착순입니다. 조기 소진 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세요!
-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이수천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2020년 개정 세법 주요내용(3)

제2편 국세징수법

(1) 고액·상습채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국징법 § 7의5, 관세법 § 116의4)

현행	개정안
<p><신설></p> <p>□ 고액·상습채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p> <p>○ (대상자) 과세관청(세관장)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대해 30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에게 감치 신청</p> <p>- 국세(관세*)를 3회 이상 체납, 체납 1년 경과, 체납액 합계 1억원 이상</p> <p>* 국세와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를 포함)에 대해 각각 요건충족 여부 검토</p> <p>- 체납국세(관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p> <p>- 국세(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 인정</p> <p>* 과태료 고액·상습채납자에 대한 감치규정(「질서위반행위규제법」 §54) 준용</p> <p>** (국세) 위원장(민간), 내부위원 5명, 민간위원 5명 등 11명으로 구성 (관세) 위원장(민간), 내부위원 4명, 민간위원 6명 등 11명으로 구성</p> <p>○ (기본권 보호 조치)</p> <p>- 과세관청(세관장)의 감치 신청 전 체납자에게 소명기회 부여</p> <p>-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한 재차 감치 신청 금지</p> <p>※(감치 신청 이후 절차*) 과세관청(세관장)의 감치 신청 → 검사의 감치 청구 → 법원의 결정 → 체납자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p> <p>*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감치규정 준용</p>	<p>□ 고액·상습채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p> <p>○ (대상자) 과세관청(세관장)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대해 30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에게 감치 신청</p> <p>- 국세(관세*)를 3회 이상 체납, 체납 1년 경과, 체납액 합계 1억원 이상</p> <p>* 국세와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를 포함)에 대해 각각 요건충족 여부 검토</p> <p>- 체납국세(관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p> <p>- 국세(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 인정</p> <p>* 과태료 고액·상습채납자에 대한 감치규정(「질서위반행위규제법」 §54) 준용</p> <p>** (국세) 위원장(민간), 내부위원 5명, 민간위원 5명 등 11명으로 구성 (관세) 위원장(민간), 내부위원 4명, 민간위원 6명 등 11명으로 구성</p> <p>○ (기본권 보호 조치)</p> <p>- 과세관청(세관장)의 감치 신청 전 체납자에게 소명기회 부여</p> <p>-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한 재차 감치 신청 금지</p> <p>※(감치 신청 이후 절차*) 과세관청(세관장)의 감치 신청 → 검사의 감치 청구 → 법원의 결정 → 체납자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p> <p>*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감치규정 준용</p>

<개정이유> 고액·상습 채납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0.1.1. 이후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

(1)-1 고액·상습 채납자에 대한 감치제도 기준금액 인상 등(국징법 § 7의5)

정부안	수정안
<p>□ 고액·상습 채납자에 대한 감치제도 신설</p> <p>○ (감치대상자) 다음 요건 모두 충족</p> <p>① 체납액 합계 1억원 이상 등</p> <p>② 호화생활을 하는 등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사유없이 체납</p> <p>③ 국세정보위원회의결로 감치필요성 인정</p> <p>○ (감치절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 준용</p> <p>* 검사의 감치 청구, 법원의 감치결정 등</p>	<p>□ 감치 기준금액 인상 및 감치요건 명확화</p> <p>○ (감치대상자) 다음 요건 모두 충족</p> <p>① 기준금액 인상 : 1억원 → 2억원</p> <p>② '호화생활' 삭제(요건 명확화)</p> <p>③ (좌동)</p> <p>○ 감치절차를 「국세징수법」에 명시</p>

<수정이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

제3편 부가가치세법

(1) 부동산신탁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부가법 § 10③, 부가령 § 21의2)

현행	개정안
□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시 납세의무자	□ 도시정비사업 등에 관한 납세의무자 변경

- (원칙) 위탁자
- (예외) 수탁자
 - 담보신탁으로서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좌동)

<추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지정개발자로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개정이유> 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신탁회사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납세편의 및 행정효율 제고

<적용시기> '20.1.1. 이후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

(2)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부가법 § 42, 부가령 § 84②, § 113②)

현행	개정안																								
<p>□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p> <p>*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p> <p>○ 공제율</p> <table border="1"> <thead> <tr> <th>업종</th> <th>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음식점(개인)</td> <td>4억이하 9/109 ('19년말까지)</td> </tr> <tr> <td></td> <td>4억초과 8/108</td> </tr> <tr> <td>음식점(법인)</td> <td>6/106</td> </tr> <tr> <td>과세유통장소, 제조업(개인, 중소기업)</td> <td>4/104</td> </tr> <tr> <td>기타</td> <td>2/102</td> </tr> </tbody> </table>	업종	공제율	음식점(개인)	4억이하 9/109 ('19년말까지)		4억초과 8/108	음식점(법인)	6/106	과세유통장소, 제조업(개인, 중소기업)	4/104	기타	2/102	<p>□ 영세 음식점업자 공제를 및공제한도 적용기한 연장</p> <p>○ 개인음식점(4억 이하) 공제율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p> <p>- 과세유통장소 공제율 인하</p> <table border="1"> <thead> <tr> <th>업종</th> <th>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음식점(개인)</td> <td>4억이하 9/109 ('21년말까지)</td> </tr> <tr> <td></td> <td>4억초과 8/108</td> </tr> <tr> <td>음식점(법인)</td> <td>6/106</td> </tr> <tr> <td>제조업(개인, 중소기업)</td> <td>4/104</td> </tr> <tr> <td>과세유통장소, 기타</td> <td>2/102</td> </tr> </tbody> </table>	업종	공제율	음식점(개인)	4억이하 9/109 ('21년말까지)		4억초과 8/108	음식점(법인)	6/106	제조업(개인, 중소기업)	4/104	과세유통장소, 기타	2/102
업종	공제율																								
음식점(개인)	4억이하 9/109 ('19년말까지)																								
	4억초과 8/108																								
음식점(법인)	6/106																								
과세유통장소, 제조업(개인, 중소기업)	4/104																								
기타	2/102																								
업종	공제율																								
음식점(개인)	4억이하 9/109 ('21년말까지)																								
	4억초과 8/108																								
음식점(법인)	6/106																								
제조업(개인, 중소기업)	4/104																								
과세유통장소, 기타	2/102																								

○ 공제한도

구분	과세표준(연간기준)	기본 ('19년말까지)	
		과세표준의	음식점업 ('19년말까지)
개인사업자	2억원이하	55%	65%
	2~4억원	45%	60%
	4억원초과		50%
법인사업자		40%	

○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구분	과세표준(연간기준)	기본 ('21년말까지)	
		과세표준의	음식점업 ('21년말까지)
개인사업자	2억원이하	55%	65%
	2~4억원	45%	60%
	4억원초과		40%
법인사업자		40%	

<개정이유> 음식점업 등 영세 자영업자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3)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확대(부가령 § 87②)

현행	개정안
<p>□ 대손세액공제의 범위</p> <p>○ (대손사유)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p> <p>*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p> <p>○ (대손세액)</p> <p>대손금액 × 10/1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p> <p>○ (적용기한) 공급일로부터 5년 이내 대손확정</p>	<p>□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확대</p> <p>○ (좌동)</p> <p>○ 5년 이내 → 10년 이내</p>

<개정이유> 대손세액 공제 적용기한을 확대하여 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대손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박문각 세무팀이 새롭게 도약합니다!

1년 내 합격은 목표가 아니라 현실이 되어야 하기에

2개월
종합반

9급
스파르타
회원반

박문각 세무 / 관세 이론종합반

상담서비스
카톡상담 TALK
※ 박문각을 검색하세요.

5월 11일(월) 개강

검증된
박문각 남부
최고 강사진

45년 전통
합격노하우
커리큘럼

수험생
1:1
맞춤관리



종합반 초시생 부담
ZERO EVENT

(~5/11일 까지)



- 1.수강료 **파격할인!** 2개월 **9만9천원**
- 2.종합반 **교재 공통 3과목 부담 ZERO!**
- 3.영어 점수 만들기 **Base Making 강의 동영상 전원제공!**



「2020년 시험대비」 노동법 체계를 잡는 조문 특강(17)

| 김광훈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제4장 쟁의행위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 ①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 ②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령 제17조(쟁의행위의 신고)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관한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 ① 쟁의행위는 그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 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③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다.

시행령 제18조(폭력행위 등의 신고)

-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가 법 제38조제1항·제2항,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행정관청과 관한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전화 기타의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39조(근로자의 구속제한)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제40조 삭제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 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 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②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 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 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0조(방산물자 생산업무 종사자의 범위)

법 제41조제2항에서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제조·가공·조립·정비·재생·개량·성능검사·열처리·도장·가스취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42조(폭력행위등의 금지)

- ①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 ②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행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 ③ 행정관청은 쟁의행위가 제2항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즉시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노동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통보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시행령 제21조(점거가 금지되는 시설)

법 제42조제1항에서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1. 전기·전산 또는 통신시설
- 2.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차량 또는 선로
- 3. 간조·수리 또는 정박중인 선박. 다만, 「선원법」에 의한 선원이 당해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항공기·항행안전시설 또는 항공기의 이·착륙이나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 5. 화학·폭약 등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보관·저장하는 장소
- 6. 기타 점거될 경우 생산 기타 주요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시행령 제22조(중지통보)

행정관청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쟁의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 ① 이 법에서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 ②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행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제42조의3(필수유지업무협정)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행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이하 “필수유지업무협정”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42조의4(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

- ①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 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 조정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조정 위원회의 해석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에 관하여는 제69조와 제7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령 제22조의3(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 신청 등)

- ① 노동관계 당사자가 법 제42조의4제1항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이하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이라 한다)을 신청하면 관한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위한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노동위원회는 법 제42조의4제2항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을 하던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노동관계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한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동관계 당사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노동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관한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해석 요청에 대하여 법 제42조의4제4항에 따라 해당 특별 조정위원회가 해석을 하면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의 신청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5(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제4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한게 유지·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42조의6(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 ① 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거나 제4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지명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노동조합의 해당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 ②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제3항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이 경우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2조의4(파업참가자 수의 산정방법)

- ① 법 제43조제4항 후단에 따른 파업참가자 수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파업 참가를 이유로 근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의 수를 1일 단위로 산정한다.
-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파업참가자 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②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5조(조정외의 전치)

- ①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한다)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최신교재와
다양한 혜택!

박문각 북스파

신규 금액별 시은품 추가 입고!

박문각 주간 모의고사 무료 증정(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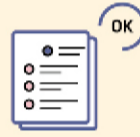
박문각북스파에서 3만원 이상 도서 구매시
공통 과목을 완전정복할 수 있는 박문각 주간 모의고사를
금액별 시은품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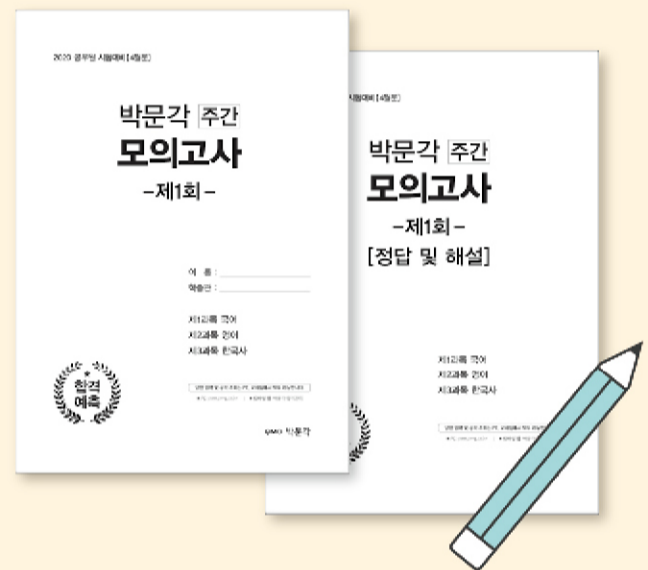
국어, 영어, 한국사
필수과목 완전정복



6회 이상 검수로
엄선된 문제



실제 시험과 동일한
유형 & 문항구성



블로그 이벤트 Vol.2

박문각북스파에서 교재를 구매한 주문번호를
북스파 블로그에 남겨주세요.
글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추가할인 가능한
북스파 도서할인쿠폰을 무조건 드립니다.

무조건
드려요

100%
증정



북스파
도서할인쿠폰

선착순 20명

박문각경찰의 목표는 단하나, 당신의 합격입니다.

박문각 경찰 프리미엄 관리반

5월 18일(월) 개강



개인별 성적분석
관리 시스템



전과목 프리패스
동영상 제공



교수진 참여
스터디

2020년 1차 시험대비 프리미엄관리반 시간표

시 확인학습	월	화	수	목	금	토
09:00 - 13:00	한국사 (10:00 - 13:00)	한국사 (10:00 - 13:00)	형 법	형 법	형소법	형소법
14:00 - 18:00	영 어	영 어	한국사 (14:00 - 17:00)	경찰학	경찰학	study

※ 학원과 시험 일정에 따라 시간표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PACK (6개월)

20%
할인가

1,920,000원

프리미엄 PACK (10개월)

20%
할인가


3,200,000원

한 번의 등록으로 합격까지!! 박문각 최초, 종로에서 새로운 관리시스템을 선보입니다.

9급 공무원 [박문각종로학원] 스파르타 평생회원반

합격할 때 까지 합격에 필요한 모든 것을 무한 책임지는 박문각의 새로운 관리시스템


학원 강의



필수과목
강사선택제

+


온라인 강의



전과목·전강사
무제한 수강

+

영어 집중반



기초반·고급반
수준별 강의









VER 3.0

스파르타 관리

스파르타
평생회원반

X2배 강력해진
수강생 관리

이 모든 것이 합격할 때 까지!

 2020년대비 기본서5권	 학원강의 정규과정	 온라인강의 9급 올패스	 전용학습관 1인 독서실
 VOCA 교재	 2019년 기술문제집	 전국모의고사 응시권	 고급독서대 텀블러

※ 유의사항

1. 학원강의 정규과정에서 평생회원반 · 스파르타반은 기본이론반 · 테마이론반 · 기술문제반 · 영어집중관리반을 무료로 수강가능 합니다. 그 이외 수업은 등록해야 합니다.
2. 박문각 9급 올패스 동영상은 평생회원반은 1년 제공(1년 이후는 종로학원 강의 동영상 제공), 스파르타반은 해당기간 동안 제공됩니다.
3. 전용학습관 1인 독서실은 평생회원반은 1년 제공, 스파르타반은 해당기간 동안 제공됩니다.
4. 2021년 국가직 · 지방직 대비 평생회원반은 ~2021년 5월까지 / 2021년 국가직 대비 평생회원반은 ~2021년 4월까지 전용학습관 1인 독서실 · 박문각 9급 올패스 동영상이 제공됩니다.

평생회원 · 스파르타 수강료

합격 할 때까지 평생회원반	279만원	2021년 국가직 · 지방직 대비 평생회원반 (기간 : 2021년 5월까지)	340만원
2021년 국가직 대비 평생회원반 (기간 : 2021년 4월까지)	310만원	2020년 지방직 대비 스파르타반 (기간 : 2020년 6월까지)	90만원
6개월 스파르타반	180만원	2개월 스파르타반	60만원



「2020년 공무원 시험대비」 교정학 실전 총정리 50선(1)

| 김지훈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김지훈 교정학

▶ 김지훈 교정학 파이널 총정리특강
개강 : 2020/06/23
시간 : [화] 09:00~13:00 [2회완성]

▶ 김지훈 정도교정학
개강 : 2020/05/15
시간 : [금] 14:00~18:00 [8주완성]

01.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범죄화란 지금까지 형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폐지하여 범죄목록에서 삭제하거나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그 대상범죄로는 단순도박죄, 낙태죄 등이 제시된다.
- ②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법규정과 관계없이 반사회적인 법익침해행위이고, 실질적의미의 범죄는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행위이다.
- ③ 신범죄화(신규범죄화)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형벌구성요건을 창설하는 것으로 환경범죄, 경제범죄, 컴퓨터범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④ 암수범죄(숨은범죄)는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였으나 범죄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를 의미한다.

[정답] ②

해설 : 실질적의미의 범죄는 법규정과 관계없이 반사회적인 법익침해행위이고, 형식적의미의 범죄는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된 행위이다.

02. 형사정책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정책학은 범죄의 원인분석을 위해 사실학적 접근을 필요로 하므로 경험과학적 성격을 갖고 있다.
- ② 형사정책은 처벌을 전제로 하므로 형사정책학은 실질적 의미의 범죄를 연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③ 형사정책학은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도 연구대상으로 한다.
- ④ 형사정책학은 현행 형벌제도가 범죄예방수단으로서 유효한가에 대하여 검증은 함으로써 형법의 개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답] ②

해설 : 규범적인 형법이 실질적 의미의 범죄를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사실학과 규범학을 겸비한 형사정책에서는 특히나 사실학의 연구와 관련해 실질적의미의 범죄인 일탈 등을 연구대상에 포함시킨다.

03. 다음 중 범죄통계와 거리가 먼 것은?

- ① 공식범죄통계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경찰, 검찰, 법원 및 법무연수원 등이다.
- ② 공식범죄통계는 범죄율과 범죄자의 특성 연구에 이용된다.
- ③ 일반적으로 범죄율은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건수를 의미한다.
- ④ 공식범죄통계 작성시에는 자기보고식 조사나 피해자조사의 방법이 이용된다.

[정답] ④

해설 : 자기보고식 조사나 피해조사의 방법은 공식통계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특히 암수범죄의 발견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조사방법이다. 공식통계는 형사사법기관이 해결한 범죄를 중심으로 범죄율을 작성하는 통상적인 방법이다.

04. 암수범죄의 원인이 아닌 것은?

- ① 교정기관의 자의적 처리
- ② 수사기관의 범죄 미인지
- ③ 범인의 미체포
- ④ 법원의 자의에 의한 처리

[정답] ①

해설 : 암수범죄란 현실로 발생하였으나 범죄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를 말한다. 범죄에 대한 공식통계는 유·무죄가 확정되는 법원단계에서 종결되므로 교정과정에서의 자의적 처리는 암수범죄의 발생원인이 아니다.

05. 암수범죄(hidden crime)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암수는 고정된 수치가 아니라 일정치 않은 변수로 존재한다.

- ② 암수범죄의 존재로 인해 가장 많이 비판받는 형벌이론은 절대적 형벌이론이다.
- ③ 암수범죄의 조사방법으로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피해자조사이다.
- ④ 셸린(T.Sellin)에 따르면 범죄통계의 가치는 절차의 개입에 의하여 범죄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증가한다.

[정답] ④

해설 : 셸린에 따르면 범죄통계의 가치는 절차의 개입에 의하여 범죄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감소한다.

06. 형사정책의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식범죄통계는 범죄현상을 분석하는데 기본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숨은 범죄를 포함한 객관적인 범죄상황을 정확히 나타내는 장점이 있다.
- ② 실험적 연구는 새로 도입한 형사사법제도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 ③ 표본조사방법은 특정한 범죄자 모집단의 일부인 표본으로 선정하여 그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그 표본이 추출된 모집단에 유추적용하는 방법이다.
- ④ 추행조사방법은 일정한 범죄자 또는 비범죄자들에 대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추적·조사하여 그들의 특성과 사회적 조건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범죄와의 상호 연결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 공식범죄통계는 암수범죄의 문제점과 범죄에 대한 질적 측면에 대한 파악의 어려움 및 형사사법기관의 선별적 형사소추등의 제량으로 객관적인 범죄상황을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 다음호에 계속 ... >

대학편입 합격의 기준, 박문각편입학원

5/1 개강

5월 탐7 더센 관리반 개강!

편입영어
체계적 이론완성 2개월 + 2개월 빠른 문제풀이
아침반 오전반
저녁반 주말반

편입수학
미적분 2개월 완파 + 선형대수학 시작반 개강
미적분학 미적분학2
선형대수학 주말 미적분

5월 설명회 개최

자연계 설명회 5/16(토) 14:00	인문계 설명회 5/23(토) 14:00	상위권 컨설팅 5/30(토) 11:00
--------------------------	--------------------------	--------------------------

박문각  를 검색하세요.

7급 · 9급 · 공채 · 경채 · 승진 시험대비

김지훈 교정직 집중반

正道 교정학 김지훈



| 김지훈 교수 (형사정책 · 교정학)

-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졸업
- 동국대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졸업(경찰학석사-형사학전공)
- 경기대 대학원 교정보호학과 박사졸업(교정학박사)
- 현) 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 초빙교수
- 현) 박문각공무원노량진 교정학 전임교수

| 김지훈 교정직 합격 프로그램



* 상기일정은 학원시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박문각공무원 노량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형사소송법 주요 최신 판례(10)

(2017. 1. ~ 2020. 1. 20.)

| 김상천 교수 | 박문각남부경찰학원

3. 증거

(16) 전문증거인지 여부의 판단(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2019. 8. 29.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형사소송법은 제310조의2에서 원칙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에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되지만,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서류가 그곳에 기재된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어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 사실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이 공소의 1에게 말한 내용에 관한 공소의 1의 업무수첩 등에는 '피고인이 공소의 1에게 지시한 내용'(이하 '지시 사항 부분'이라 한다)과 '피고인과 개별 면담자가 나눈 대화 내용을 피고인이 단독 면담 후 공소의 1에게 불러주었다는 내용'(이하 '대화 내용 부분'이라 한다)이 함께 있다.

첫째, 공소의 1의 진술 중 지시 사항 부분은 피고인이 공소의 1에게 지시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본래증거이고 전문증거가 아니다. 그리고 공소의 1의 업무수첩 중 지시 사항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인 공소의 1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경우에는 진술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둘째, 공소의 1의 업무수첩 등의 대화 내용 부분이 피고인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서 대화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진술증거인 경우에는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이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한 것임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공소의 1의 업무수첩 등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공소의 1의 업무수첩 등은 피고인과 개별 면담자가 나눈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허용하면 대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직접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결국 대화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공소의 1의 업무수첩은 공소의 1이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 등을 기재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굳이 반대신문의 기재 부여가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에 관한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소의 1의 업무수첩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정한 문서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있다. 이 사건에서 공소의 1의 업무수첩 등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공소의 1의 업무수첩 등은 피고인과 개별 면담자가 나눈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허용하면 대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직접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결국 대화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공소의 1의 업무수첩은 공소의 1이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 등을 기재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굳이 반대신문의 기재 부여가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에 관한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소의 1의 업무수첩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정한 문서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17) 315조(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2671 판결)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 있는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른바 보형사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18) 314조(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규정 내용과 그 개정 취지에 따라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한다는 점을 여러 판례를 통해 확인해 왔다.

먼저 제314조가 규정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공판이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임상신문이나 출장신문도 불가능할 정도의 중병임을 요한다고 하였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3619 판결 참조), '외국거주'에 대해서는 원진술자가 외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한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하며, 해당 국가와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우선 사법공조의 절차에 의하여 증인을 소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고, 소환을 할 수 없는 경우라도 외국의 법원에 사법공조로 증인신문을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1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재불명'에 해당하려면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재타지추락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는데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260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제314조가 규정하는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은 개인의 신체적 사유나 법정 출석에 따른 장소적, 거리적 제한 내지 출석을 고지할 수 없는 사정 등이 있어 물리적으로 증인이 법정에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나오더라도 진술을 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증언거부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증언거부는 위와 같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의 경우에 준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와 증언거부권의 정당한 행사가 아닌 경우를 비교하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증인의 증언거부가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는 피고인과는 상관없는 증인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고, 피고인으로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 증인이건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증인이건 상관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31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경우까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하여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취지에 반하고 정의의 관념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 다음호에 계속 ... >

조충환·양건 테마 시리즈



2020 테마 형법·형사소송법 전면개정판

수많은 합격생을 배출한 바로 그 객관식 문제집!

각종 기출문제 + 예상문제 총정리

“고득점을 위한 완벽한 객관식 문제집!”



양건

조충환

18개월 동안 전 과정 무제한 수강!

박문각 경찰 올패스

전문 교수진의 빈틈 없는 커리큘럼
올패스 하나면 경찰공무원 확대 채용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 시
100% 환급
제세공과금 22% 공제후 지급


경제적 수강료
35만원

구매일로부터
18개월 수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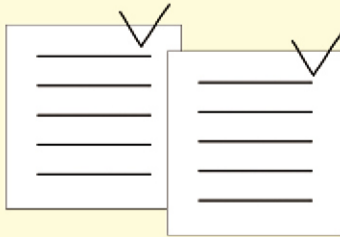
수강기간 부담 ZERO, 필요한 것은 다 갖춘 구매 혜택
올패스 하나로 순경 공채, 경쟁 경채 대비 가능!

박문각 경찰 올패스만의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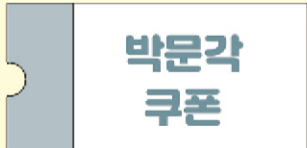
- 1 **가산점 5점 대비용 실용글쓰기 강좌 제공**



국가 공인
저자 직강
- 2 **실전력 강화 훈련 Daily / Weekly TEST**



매일 과목별 1문제
매주 과목별 5문제
- 3 **약점파악 및 보완 온라인 모의고사**



응시쿠폰
5개 지급



「2020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김정겸 교육학 논술 모의고사(5)

| 김정겸교수 | 박문각임용고시학원

⑤ 서론/결론 쓰기 : 신규교사 기준, 주제, 7가지 소주제
가. 서론 : 신규교사 기준 → 주제 → 7가지 소주제
[구체 → 추상]

'신규교사의 자질과 능력에 관한 일반기준'	<p>기준 8. 교사는 학습을 지원하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한다.</p> <p>8-1. 교사는 학생의 자율적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지원한다.</p> <p>8-2. 교사는 민주적으로 학급을 관리·운영한다.</p> <p>8-3. 교사는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한다.</p>
-------------------------	--

'주제' 7가지 소주제'	<p>다음은 제시문의 내용은 '교사는 학습을 지원하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두 교사의 대화 내용이다. 대화를 읽고 1)학생의 자율적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지원 2)민주적으로 학급을 관리운영 3)교사 간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학교 문화 조성에 대한 내용을 구성요소로 하여 논하시오. [20점]</p>
---------------	---

교사는 학습을 지원하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존재이다. [신규교사 기준] → 교사는 '학습을 지원하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주제] → 따라서 학생의 자율적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지원, 민주적인 학급 관리운영,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할 필요성이 있다. [7가지 소주제]

나. 결론 : 논술내용 → 주제 → 신규교사 기준
[구체 → 추상]

PATTERN②의 '주제-제시문-문제' 분석	<p>PATTERN②</p> <p>상황: '교사는 학습을 지원하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을 위한 김 교사, 박 교사의 대화</p> <p>1) 교수학습: 학생의 자율적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 토의 학습</p> <p>2) 교육행정: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 할 수 있는 모형 ⇒ 합리적 모형</p> <p>3) 교육행정: 학급운영 원칙에 관한 교사들의 내면화 ⇒ 민주성의 원리를 반드시 포함한 원칙 제시</p> <p>4) 교육평가: 학교 경영방식에 대한 평가 모형 ⇒ CIPP모형</p> <p>5) 교육행정: 교장의 권한을 위임하는 정도 ⇒ 분산적 지도성</p> <p>6) 교육평가: 재검사 신뢰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 동형검사 신뢰도</p> <p>7) 교육과정: 공식적 교육과정의 필연적 산물 ⇒ 영 교육과정</p>
--------------------------	---

'신규교사의 자질과 능력에 관한 일반기준'	<p>기준 8. 교사는 학습을 지원하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한다.</p> <p>8-1. 교사는 학생의 자율적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지원한다.</p> <p>8-2. 교사는 민주적으로 학급을 관리·운영한다.</p> <p>8-3. 교사는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한다.</p>
-------------------------	--

학생의 자율적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합리적인 의사 결정, 학급 운영 원칙, 학교 경영에 대한 평가, 지도성, 신뢰도, 영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역량이 필요하다. [7가지 소주제] 교사는 학습을 지원하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이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 [주제] 이처럼 교사는 학습을 지원하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생의 자율적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지원, 민주적으로 학급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방법,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규교사 기준]

⑥ 주제와 연계한 본론 : 첫 문장(주제+소주제), 끝 문장(주제+문제)

가. 첫 문장(주제+소주제)

[소주제 1] 교사는 학생의 자율적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토의법을 활용할 수 있는 [소주제] 역량을 길러야 한다. [주제]

[소주제 2] 교사는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 할 수 있는 다양한 모형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소주제] 역량을 길러야 한다. [주제]

[소주제 3] 교사는 민주성의 원리를 포함한 다양한 학급운영 원칙을 내면화하여 [소주제] 창의적으로 학급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주제]

[소주제 4] 교장은 학교 경영방식을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평가할 수 있기 위해서 [주제] CIPP모형과 같은 경영방식 평가 모형에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소주제]

[소주제 5] 교장은 독일에 의한 행정보다는 자신의 권한을 분산하여 위임함으로써 [소주제] 학교경영에 대한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주제]

[소주제 6] 목표와의 일치성을 위해 타당도를 높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재검사 신뢰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동형검사 신뢰도를 이해함으로써 [소주제] 평가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주제]

[소주제 7] 교사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식

적 교육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배제된 내용을 살핌으로서 [소주제] 교육과정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높일 수 있다. [주제]



나. 끝 문장(주제+문제)

[소주제 1]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토의법을 고려할 수 있는 [문제]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주제]

[소주제 2] 초 합리성을 따라는 의사결정보다는 확실한 상황에서 충분한 자료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문제] 의사 결정모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주제]

[소주제 3]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학급 경영을 위해 교사는 협동성, 친밀성 등의 원칙 [문제] 에 대한 전략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주제]

[소주제 4] 교육평가나 학교 경영평가를 함에 있어 지도자가 어떤 단계에서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 그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하는 것은 [문제] 교육경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주제]

[소주제 5] 분산적 지도성은 공동책임하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지도성이므로 학급, 학교경영을 위해 [문제] 조직을 이끌어 가는 사람이 반드시 지녀할 덕목이다. [주제]

[소주제 6] 교육평가는 평가도구의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문제]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주제]

[소주제 7] 공식적 교육과정에서 제외됨으로서 배워야 할 학습기회를 놓치게 됨으로서 제외되어 있는 내용에 [문제]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주제]

⑦ 표현의 적절성 : 어휘력, 문장력, 훈련법

가. 어휘력[단어]

[맞춤법]

: 자주 틀리기 쉬운 맞춤법들 확인하고, '맞춤법 교정 사이트' 활용하기

[제시문 · 문제의 단어 바꿔쓰기/풀어쓰기]

나. 문장력[문장]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

: 단문을 쓰고, 군더더기를 빼기, 비문 조심하기

[적절한 접속 표현 사용]

⇒ '이에' '이는' '또한' '반면' '따라서' '이처럼' '이와 같이' '한편' '그러므로' '이로써'

SINCE 1972
박문각임용고시학원

전공

합격을 위한
수험생 여러분의
든든한 길잡이
되겠습니다.



2021학년도 교원임용 시험대비

이해중심의 명품강의 김은진 영양교사

[5~6월] |영양교사 이론II(8주)

강의 시간	강의 기간	개강-종강일	수강료
금 10:00~17:00	8주	5/8(금)~6/26(금)	38만원

[강의 내용]

이론 II: 조리원리 및 식품학, 단체급식, 식품위생학, 식사요법 내용 정리

☞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여 1:1 상담 진행 (5월 개강 수업 때 공지)

주차	강의 과목	
1주	조리원리 및 식품학	단체급식
2주	조리원리 및 식품학	단체급식
3주	조리원리 및 식품학	단체급식
4주	조리원리 및 식품학	단체급식
5주	조리원리 및 식품학	식품위생학
6주	조리원리 및 식품학	식사요법
7주	식사요법	식품위생학
8주	식사요법	식품위생학

[강의 교재] *별도 프린트

[접수 안내]	<p>◆ 5-6월 단과 할인 안내 할인 이벤트 : 2만원 (~ 2020년 5월 29일(금))</p>
	<p>◆ 3-8월 패키지 강의 안내 1,140,000원 → 1,050,000원 (~ 2020년 5월 14일(목)) 〈유의사항〉 3-4월 인강 제공, 자료는 출력만 가능. 환불시 직강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인강 오픈시 인강 제공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p> <p>패키지 수강생 혜택 7-8월 기출 강의 채점 진행. (기간 및 방법 추후 공지 예정)</p>



「2021학년도 전공수학 중등교원임용시험 대비」

2020학년도 전공수학 기출문제 및 해설(4)

| 이행래 교수 | 박문각임용고시학원

01. 다음은 라카토스(Lakatos)의 준경험주의 수리철학에 대한 두 교사의 대화이다.

이 교사: 라카토스에 따르면 수학적 지식은 반증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참이며, 증명은 원래의 추측을 부분 추측으로 분해하는 사고 실험이에요.

김 교사: 수학적 추측이 증명되었을 때 그 추측을 반박하는 전면적 반례가 등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교사: 대응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방식은 ㉠ 이미 증명된 추측은 그대로 두고 오히려 반례가 잘못되었다고 보아 원래의 추측을 존속시키는 거예요. 이 방식은 반례와 관련된 개념을 추측이 성립하는 영역 밖으로 몰아내는 것에 주로 관심을 두어 개념을 재 정의하지요.

김 교사: 또 다른 방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 교사: ㉡ 전면적 반례가 출현하게 된 원인이 되는 부분 추측을 찾아 원래의 추측에 합체시키고 증명과 추측을 개선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 방식에서 전면적 반례는 동시에 국소적 반례도 되지요. 이 방식을 통해 발견과 정당화의 논리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될 수 있어요.

전면적 반례에 의해 추측이 비판되었을 때 대응하는 방식 ㉠과 ㉡을 라카토스가 제시한 용어로 순서대로 쓰시오. [2점]

정답 01. · ㉠ 피물 배제법 ㉡ 보조정리 합체법 · 영역 - 교과 교육론

02. 좌표평면 R^2 의 거리함수 $d((x, y), (a, b)) = |x - a| + |y - b|$ 와 원점 O 에 대하여, R^2 에서 거리함수 e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e(P, Q) = \begin{cases} d(O, P) + d(O, Q) & , P \neq Q \\ 0 & , P = Q \end{cases}$$

거리공간 (R^2, e) 에서 두 점 $(1, 3)$ 과 $(-1, \frac{1}{2})$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또한 열린 집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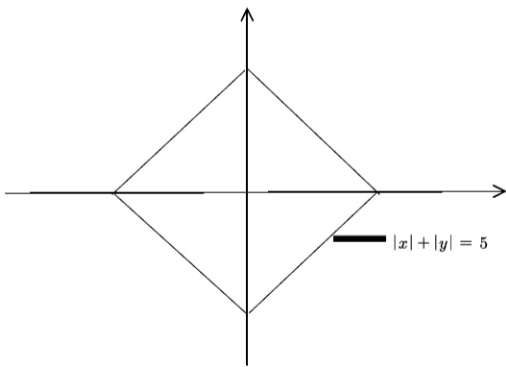
$$\{(x, y) \in R^2 \mid e((x, y), (1, 3)) < 9\}$$

에 속하고 각 좌표가 모두 정수인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2점]

정답 02. · $e((1, 3), (-1, \frac{1}{2})) = \frac{11}{2}$, 41 · 영역 - 위상수학

(1) $e((1, 3), (-1, \frac{1}{2})) = d((0, 0), (1, 3)) + d((0, 0), (-1, \frac{1}{2})) = 1 + 3 + 1 + \frac{1}{2} = \frac{11}{2}$ 이다.

(2) $e((x, y), (1, 3)) = |x| + |y| + 4 < 9$ 이다. 따라서 $|x| + |y| < 5$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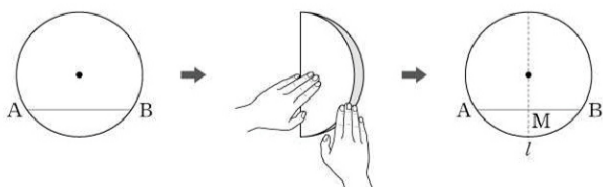


y의 값	y = 0	y = ±1	y = ±2	y = ±3	y = ±4	합
x의 개수	9	7	5	3	1	41개

03. 원의 현에 관한 성질 중 한 가지를 지도하기 위해 교사가 <자료 1>과 <자료 2>를 개발하였다.

• 자료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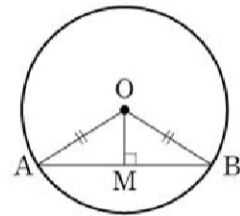
- 원 모양의 종이에 현 AB를 그린다.
- 점 A와 점 B가 겹쳐지도록 접었다가 펼친다.
- ②에서 접은 선을 l이라 하고, l과 현 AB가 만나는 점을 M이라고 한다.



질문: 직선 l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가?
 직선 l이 현 AB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얼마인가?
 \overline{AM} 과 \overline{BM} 의 길이를 비교하시오.

• 자료 2 •

원 O의 중심에서 현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M이라고 하면 $\triangle OAM$ 과 $\triangle OBM$ 에서 $\overline{OA} = \overline{OB}$ (반지름), $\angle OMA = \angle OMB = 90^\circ$, \overline{OM} 은 공통이므로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의하여 $\triangle OAM \cong \triangle OBM$ 이다. 따라서 $\overline{AM} = \overline{BM}$ 다. 이로부터 다음을 알 수 있다. (㉠)



<자료 1>과 <자료 2>를 통해 교사가 공통으로 가르치려는 원의 현에 관한 성질 ㉠을 서술하시오. 그리고 <자료 1>과 <자료 2>에서 사용한 정당화 방법이 무엇인지 각각 쓰고, 두 자료를 학생 수준에 맞게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서술하시오. [4점]

정답 03. · 해설 참조 · 영역 - 교과 교육론

- ㉠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그 현을 이등분한다.
- <자료 1>은 귀납추론(경험적 정당화)이고 <자료 2>는 연역추론(형식적 정당화)이다.
- 학생들의 인지수준을 고려하여 <자료 1>과 같이 귀납추론을 통하여 기하적 성질을 이해하도록 학습자의 학습활동을 독려하고, 학생들의 토론 과정을 통해 정당화(증명)하는 방법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킨 후 연역추론으로 정당화 하는 방법을 지도한다.

04. 박 교사는 상관관계를 지도하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휴대전화 사용 시간과 수면 시간의 상관관계'를 포스터로 제작하도록 하였다. A 모둠 학생들이 만든 포스터는 다음과 같다.

휴대전화 사용 시간과 수면 시간

A 모둠

- 자료 수집
우리 반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전년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과 수면 시간을 조사하였다.
- 자료 정리
20명의 자료를 (휴대전화 사용 시간, 수면 시간)의 순서쌍으로 나타내고 산점도를 그렸다.
- 자료 분석
우리 반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과 수면 시간 사이의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 결론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줄이면 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박 교사는 프로젝트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포스터를 다음의 항목에 대해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 항목	(1) 자료를 적절한 방법으로 수집하였는가?	(2) 자료를 조사 목적에 맞게 정리하였는가?	(3) 자료를 옳게 분석하였는가?	(4) 결론이 적절한가?
-------	--------------------------	---------------------------	--------------------	---------------

이 수업의 평가 방법으로 프로젝트 평가가 적절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리고 평가 항목 (3)에 따라 A 모둠 포스터의 '자료 분석'을, 평가 항목 (4)에 따라 A 모둠 포스터의 '결론'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각각 서술하시오. [4점]

정답 04. · 해설 참조 · 영역 - 교과 교육론

- 상관관계를 지도하기 위해 '휴대 전화 사용시간과 수면 시간의 상관관계'라는 특정한 주제로,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종합, 해결하는 과정과 결과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평가로 적절하다.
-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많을수록 수면시간은 적으므로 휴대전화 사용시간과 수면시간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한 것은 적절하다.
- 학생들의 수면 시간에 개입하는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휴대 전화 사용시간만 줄인다고 수면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추론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SINCE 1972
박문각임용고시학원

전공

합격을 위한
수험생 여러분의
튼튼한 길잡이
되겠습니다.



심재범 전공영양 카페 <http://cafe.daum.net/newtreejb> 2021학년도 교원임용 시험대비

단기합격의 전문가 심재범 영양교사

[5~6월] | 전공영양 심화이론(8주)

강의 시간	강의 기간	개강-종강일	수강료
일 10:00~17:00	8주	5/10(일)~6/28(일)	35만원

[강의 내용]
과목별 심화 이론
기출분석을 토대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이론을 먼저 학습 + 그 외 이론들.

주차	강의 과목
1주	영양 생화학
2주	식품학 & 조리 원리
3주	영양학
4주	식품 위생학 & 단체 급식
5주	생애 주기 영양학
6주	영양 교육 및 상담
7주	식사 요법
8주	식사 요법

[강의 교재] *별도 프린트

[접수 안내]	<p>◆ 아모르임용 1월 또는 2-3월 심재범 전공영양 기수강생 3만원 할인</p> <p>아모르임용 수강증 또는 수강확인서 및 수강내역 캡처본 등 수강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 후 할인 가능. <직강은 현장 접수에서만 할인 가능.></p>
---------	--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부동산공법 핵심예상문제 100선(3)

| 최성진 교수 | 박문각노량진 · 강남 · 종로중개사학원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동구관리자는 매년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150만m² 인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 ④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⑤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26. [정답] ③

[해설]

- ① 5년마다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200만m² 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의 규정(국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에 따른다.
- ⑤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을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한다.
-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 ④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27. [정답] ②

[해설]

-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 ②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③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계획시설에 인접한 건축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 ④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시행자에게 기반시설에 필요한 용지확보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28. [정답] ④

[해설]

- ④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수립시 기초조사를 위하여 행하는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나무, 흙 등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그 출입을 위하여 시장·군수 등 허가권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 ③ 일출 전이라도 소유자 등의 승낙 없이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 ④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하루 전까지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출입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보상책임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가 진다.

29. [정답] ②

[해설]

- ①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 ③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④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출입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보상책임은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가 진다.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 ②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중 지목이 대(垵)인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 ④ 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 ⑤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0. [정답] ①

[해설]

- ①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그 자가 부담한다.
- ②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③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200m²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를 초과하는 숙박시설을 증축하는 행위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다.
- ⑤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기반시설설치비용이 부과되는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행위자가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31. [정답] ②

[해설]

- ②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비용을 공공시설의 관리자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30만m² 규모의 근린공원이 해제된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③ 건축물의 형태·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 ④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 8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⑤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해서 복합개발진흥지구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변경할 수 있다.

32. [정답] ④

[해설]

- ④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3. 甲은 도시지역 내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자신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바, 그 대지 중 일부를 학교의 부지로 제공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음 조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완화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甲에게 허용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단, 지역·지구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며, 기타 용적률에 영향을 주는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2020년 제31회 시험대비 5월 공인중개사 합격플랜

명강사 명품강의 수강생이 원하는 강사를 자유롭게 선택한다 ★★★★★
맞춤형 코스 박문각 최강의 교수진 **5월 6일(수) 개강**

공인중개사 합격플랜 설명회
"6개월 합격전략 대공개!"
5월 8일(금) 오후 3시
5월 12일(화) 오후 3시
5월 21일(목) 오후 3시
5월 27일(수) 오후 3시

설명회 사전예약 접수(홈페이지 참조)

보훈가족
보훈청 중개사 수감료 지원

대한민국 수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KT 올레TV 879번에서 시작됩니다.
본 학원 강사 전원 출강!

부동산학개론 | 김백중 | 이영섭 | 윤지현 | 부동산공법 | 최성진 | 박희용
민법및민특법 | 김덕수 | 민석기 | 양승직 | 부동산세법 | 정석진 | 이혁
공인중개사법 | 신정환 | 최상준 | 부동산공시법 | 박윤모 | 양진영

중급반[심화이론과정]
5월 6일(수) 개강!
30회 응시생 2개월 중합반 등록 시 10만원 할인(중복할인 불가)

적중예상 단원별 문제풀이과정
5월 6일(수) 개강! 8주 완성!
강의교재 (박문각 권 문제집)

일요 테마특강
학개론 이영섭교수 6월 7일 공법 최성진교수 6월 14일
민법 민석기교수 6월 21일 세법 정석진교수 7월 5일

특별장기회원 대모집
(4개월 or 6개월 코스)
장기회원 등록시 수강료 특별 할인!

모집기간 : 2020년 5월 6일까지

- 1,2차반 169만원 → 특별할인? 만원
- 2 차 반 149만원 → 특별할인? 만원
- 1 차 반 129만원 → 특별할인? 만원

제공 혜택 2020년 복습용 동영상강의(PC+모바일)
2020년 전국모의고사(6회) 제공
공인중개사 합격수기집 + 합격설명서 + 핵심용어사전 제공

선착순 30명

공인중개사 전문 **PMG 박문각종로고시학원** www.pmg.co.kr **친절상담 02)733-2288**
지하철 1호선, 3호선, 5호선 종로5가역 국립관발동 3층 전방

합격의 영광을 안겨드리겠습니다!

5월 중급이론반

오전 / 야간반
오전반(맞춤형강사 선택)

개강 : 5월 6일(수) 8주 완성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과 목	부동산공법	민법및민특법	부동산세법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공시법	공인중개사법
주간 09:40~13:30 (맞춤형 강사 선택) 수·금 09:40~13:00	최성진 교수	민석기 교수	정석진 교수	이영섭 교수	양진영 교수	신정환 교수
	박희용 교수	김덕수 교수	이 혁 교수	김백중 교수	박윤모 교수	최상준 교수
야간 18:40~22:30 수·금 19:00~22:00	박희용 교수	민석기 교수	이 혁 교수	이영섭 교수	양진영 교수	주야합반 09:40~13:30

수강료 안내
■ 1,2차 중합이론반 : 1개월 270,000원 / 2개월(10%) 486,000원
■ 1차 : 1개월 180,000원 / 2개월(10%) 324,000원 ■ 2차 : 1개월 230,000원 / 2개월(10%) 414,000원

5월 이론반 맛보기무료특강 5월 6일(수) ~ 12일(화)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과 목	부동산공법	민법및민특법	부동산세법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공시법	공인중개사법
주간 09:40~13:30 (맞춤형 강사 선택) 수·금 09:40~13:00	최성진 교수	민석기 교수	정석진 교수	이영섭 교수	양진영 교수	신정환 교수
	박희용 교수	김덕수 교수	이 혁 교수	김백중 교수	박윤모 교수	최상준 교수
야간 18:40~22:30 수·금 19:00~22:00	박희용 교수	민석기 교수	이 혁 교수	이영섭 교수	양진영 교수	주야합반 09:40~13:30

2020년 공인중개사 합격 커리큘럼 **합격을 향한 최상의 스케줄**

시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론강의	기초 이론강의 기본개념 완벽정리	개념완성 이론강의 중요논점 체계정리	심화 이론강의 빈출내용 집중정리	심화 이론강의 빈출내용 집중정리	핵심이론 핵심이론 완벽정리	핵심이론 핵심이론 완벽정리	핵심이론 핵심이론 완벽정리	핵심이론 핵심이론 완벽정리	핵심이론 핵심이론 완벽정리	핵심이론 핵심이론 완벽정리
문제풀이			기술문제풀이 5개년 기술문제 유형분석	단원별 문제풀이 (박문각 문제집)	단원별 문제풀이 (박문각 문제집)	단원별 문제풀이 (박문각 문제집)	단원별 문제풀이 (박문각 문제집)	단원별 문제풀이 (박문각 문제집)	단원별 문제풀이 (박문각 문제집)	단원별 문제풀이 (박문각 문제집)
특 강		개정법령특강		민법판례특강		중요과목 테마특강				일요 하루특강 (이론 총정리)
모의고사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 상기 일정은 시험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주 택 관 리 사

2020년 23회 주택관리사(보) 시험 대비

민법 설신재	회계원리 김양수	회계원리 신은미	시설개론 신명	관계법규 조민수	관리사무 박성진
민법 합격을 앞당기는 KEY가 되다	명쾌한 정답을 도출하는 전략 회계	들을수록 답이 보이는 FINE 회계	16년 강의 경력과 열정으로 완성	쉽고 체계적인 집중 요약의 달인	관리사무의 맥과 흐름을 잡는 강의

5월 강의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과 목	관계법규	민 법	시설개론	회계원리	관리사무
교 수	조민수	설신재	신 명	신은미/김양수	박성진
주 간	-	09:30~13:30	09:30~13:30	09:30~13:30	-
야 간	19:00~22:00	19:00~22:30	19:00~22:30	19:00~22:40	19:00~22:00
인 강	주간반은 당일 오후(20시 이전), 야간반은 다음날 오전(12시 이전)				

[5월] 총정리 테마특강

- ▶ 민법 설신재 : 5/3(일)
- ▶ 시설개론 신명 : 5/10(일)
- ▶ 회계원리 김양수 : 5/17(일), 23(일)

[6월] 마무리 특강

- ▶ 시설개론 신명 : 6/13(토)
- ▶ 회계원리 김양수 : 6/14(일)
- ▶ 회계원리 신은미 : 6/21(일)
- ▶ 민법 설신재 : 7/5(일)

[6월] 100선 특강

- ▶ 민법 설신재 : 6/1(월), 5(금)
- ▶ 시설개론 신명 : 6/2(화), 6/3(수)
- ▶ 회계원리 신은미 : 6/4(목)
- ▶ 회계원리 김양수 : 6/6(토)

PMG 노량진 **박문각주택관리사학원** www.pmg.co.kr **T. 812-6616**

- 甲의 대지면적:1,000m²
- 학교 부지 제공면적:200m²
-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현재 용적률:300%
- 학교 제공부지의 용적률은 현재 용도지역과 동일함

- ① 3,200m² ② 3,300m² ③ 3,600m²
 ④ 3,900m² ⑤ 4,200m²

33. [정답] ②
[해설]
 ②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비율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따라서 용적률(300) + [1.5 × (200m² × 3) ÷ 800m²] = 300 + 5.625 = 305.625
 최대건축면적은 800m² × 305.625/100 = 2,445m² 가 된다.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건축선에 관한 계획
 ② 건축물의 건폐율
 ③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④ 건축물의 용도제한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4. [정답] ①
[해설]
 ※ 지구단위계획의 필수적 포함 내용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할 2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2.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주민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 ③ 시장 또는 군수는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 ④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⑤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35. [정답] ④
[해설]
 ④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요하는 것은?(단, 도시·군계획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

- ①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②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 ③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 ④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의 채취
- 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6. [정답] ④
[해설]
 ④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의 채취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②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③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토지 분할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관할 행정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 연면적을 5퍼센트 확대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허가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경관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 ④ 도시·군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⑤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37. [정답] ①
[해설]
 ① 토지 분할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관할 행정청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다음호에 계속...>

최고의 교수진 최고의 학원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맞춤형 선택수업 합격! 그 이상의 가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박문각!

2020년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5월 심화이론과정 대개강 각 과목별 맞춤형 선택수업
 오전반 개강: 5월 4일(월) 8주 과정
 시간 / 요일: 0교시 09:20-09:40, 수 업 09:40-13:30
 교수진: 하현진, 정석진, 김백중, 박성호, 배문환, 최성진, 신정환, 고형석, 김정호, 김덕수, 박윤모, 임의섭

야간반 개강: 5월 4일(월) 8주 과정
 시간 / 요일: 0교시 18:30-18:45, 수 업 18:45-22:10
 교수진: 하현진, 박성호, 배문환, 고형석, 김정호, 박윤모, 임의섭

장기회원 대모집
 31회 신규 수강생 정가 389만원 **파격할인!**
 30회 본원 수강생 정가 389만원 **파격할인!**
 수강기간: 등록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접수기간: 선착순 50명 마감

장기회원 특별혜택
 ① 2020년 동영상 이론강의 제공 (PC + 모바일)
 ② MP3녹음강의 제공
 ③ 제31회 합격관리 프로그램 합격 플래너 제공
 ④ 개인사물함 제공 (보증금 1만원 별도)
 ⑤ 공인중개사 핵심용어사전 제공
 ⑥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집 제공
 ⑦ 공인중개사 합격설명서 제공
 ⑧ 2020년 전국모의고사 제공

02-3476-3670
 강남역 10번출구 100m 대우빌라체 2층

최다합격 NO.1 꿈이 수험생님 방앞에 있습니다.

박문각 공인중개사 합격생 78%는 1년내 합격!!
 1~2차 안전 합격의 필수코스
 올해는 꼭 합격해야 하는 재수생 동차 합격을 바라는, 욕심 있는 모든 수강생 본격적인 문제풀이과정 스타트!

5월 단원별 예상문제풀이 특강 개강: 5월 4일(월) 8주 과정
 수업 14:30~17:00
 교수진: 하현진, 정석진, 김백중, 박성호, 배문환, 최성진, 신정환, 고형석, 김정호, 김덕수, 박윤모, 임의섭

제31회 공인중개사 합격 프로그램
 프로그램: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오후반: 기출문제, 단원별 예상문제, 단원별 동형모의고사
 특강반: 과목별 테마특강, 총정리 핵심 이론특강
 모의고사: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빠르게! 확실하게!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당신의 선택!!

2020 박문각 공인중개사

올패스

퀵

올패스의 장점은 살리고, 부담은 반으로 줄인 실속형 **ALL PASS**
지금부터 합격까지 빠르게 **GO~ GO~**

지금부터 합격까지
최적의 강의구성

2020년 시험일까지
무한수강

모든 강의 포함
29명 전문 교수진

파격가 **21만원**
(1차 상품 기준)

지금 이시기! 많은 수험생들이  올패스 퀵을 기다리는 이유

지금부터 합격까지 가는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합니다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이론과정	기본이론	개념완성	심화이론	핵심이론	마무리 특강
문제풀이	-	-	단원별 문제풀이	단원별 모의고사	전범위 모의고사

이것이 박문각만의 합격을 만드는 차이~



2020년 공인중개사 합격!
박문각 공인중개사가 적극 지원합니다!

2019년 200문제 중, 155문항 적중!
온라인 전국 모의고사 8회 무료제공

단과&특강까지 한 번 더 할인!
단과 수강 시 50% 자동 할인!

5월 개강반

박문각공무원 스파르타



순공시간이 늘었다. 성적이 올랐다!

완벽한 기본/심화
이론 완성은 기본

매일 모의고사로
실전 감각 훈련

스파르타만의
빡센 관리까지

스파르타 수강생만의 특권
모두 무료 제공!



일일/주간/월간
모의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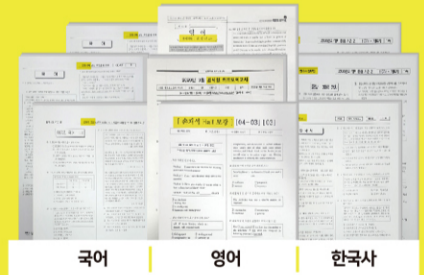


올패스 동영상강의
(최대 87만원 상당!)

* 박문각공무원 온라인7급 올패스 기준



전용자습실
1인 1지정석



모든 교수진들
강의자료 제공